

물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

제주학연구센터 편





03710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봄서

상담자료집 ②

비매품

9 791190 482561

ISBN 979-11-90482-56-1

물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계

제주학연구센터 편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660-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②**

달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9154
발행인 김순자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Tel. 064-723-7580

ISBN 979-11-90482-56-1 03710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660-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2020년도

물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

제주학연구센터 편



“‘몰마농고장’ 같은 진한 향 뽀는 ‘제주어종합상담실’ 기대”

“제주어 물론 거 싣건 들어봅서”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을 연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전화가 개통된 지 어느덧 2년이 가까워 옵니다. 2019년 3월 26일 문을 열었으니 날 수로는 정확히 645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제주어종합상담실을 만들고 <들어봅서> 상담 전화를 개통하니 언론과 도민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주어가 소멸 위기의 언어여서 그런지 ‘제주어종합상담실’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심 ‘상담 전화가 걸려오기는 할까’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를 갈무리할 시점에 <들어봅서> 전화는 그 울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연락해 옵니다.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도외 지역,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까지 제주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합니다. 제주 민요에 관심이 많은데 가사 뜻을 잘 모르겠다고 문의하는 어르신부터, 최신 유행가를 제주어로 바꾸고 싶다는 10대까지 그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올해는 특히 20대와 30대의 문의가 많아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젊은층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는 단골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 번 이용한 분은 거의 반복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처음 “이런 디도 셔낫구나양(이런 데도 있었군요).”하면서 관심을 표한 후에는, 제주어가 궁금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익숙한 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가 자주 눈에 띈다는 담당 선생님들의 뿌듯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한편으론 일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 미안도 하지만 고마움이 더욱 큼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표준어 어휘를 제주어로 바꾸거나 제주어 어휘를 표준어로 바꿔달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뜻풀이, 문장, 어원, 문법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가게 이름이나 회의실 이름을 제주어로 하고 싶다는 문의도 많았습니다. 이모티콘이나 광고 문구를 제주어로 만들었는데 괜찮은지, 표기는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제주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어에 대한 인식

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여서 뿌듯합니다. 이는 제주어종합상담실이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1월에 그동안의 상담 자료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첫 상담자료집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파》를 낸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에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두 번째 상담 자료집 《물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계》를 펴냅니다. 이 상담 자료집이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제주어종합상담실 업무를 책임져 상담하고 자료를 정리해준 김미진 전문연구위원과 서수빈, 현혜림, 현혜경 선생님께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상담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자문해 주신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님과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님, 책을 깔끔하게 꾸며준 도서출판 한그루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앞으로도 ‘물마농고장’이 진한 향을 뿜어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듯이 제주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어의 다양한 향기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수다예.

김 순 자 제주학연구센터장

물마농고장은

수 선 화 마 씨 계

목차

• 책을 내며	4
• 일러두기	8
• 한눈에 보는 2020년 상담 통계	10

1. 단어	15
2. 구와 문장	57
3. 뜻풀이	87
4. 표기	99
5. 어원과 지명	119
6. 문법과 발음	129
7. 기타	137
• 찾아보기	147

1. 이 상담 자료집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이 2020년 한 해 동안(2020. 1. 1.~2020. 11. 30.) 상담한 자료 402건을 단어,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어원과 지명, 문법과 발음, 기타 등 7개의 분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꾸민 책이다.
2. 상담 내용은 단어 관련 168건(42%), 구와 문장 85건(21%), 뜻풀이 관련 39건(10%), 표기 관련 51건(13%), 어원과 지명 21건(5%), 문법과 발음 15건(4%), 기타 23건(6%)이다.
3. '단어' 관련 168건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115건(29%),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53건(15%)이고, '구와 문장' 85건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66건(16%),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19건(5%)이었다.
4. 하나의 단어에 대한 제주어와 표준어를 묻는 질문을 '단어' 항목에, 두 개 이상의 단어나 문장은 '구와 문장' 항목으로 묶었다. 또한 '뜻풀이'는 뜻을 묻는 상담 내용 중에서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것만을 모았다. '어원과 지명' 항목에는 단어의 어원을 묻거나 지명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과 발음'은 어학적으로 제주어에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의 질문들을, '기타'는 제주어 사전 구입, 제주어 교육 등 추가적인 질문을 모았다.

-
5. 상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딸꾹질”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50대, 남, 제주)처럼 질문자의 정보를 밝혔다. 질문자의 정보는 이름, 연령대, 성별, 지역 순으로 표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힌 경우는 ‘김○○’라고 하였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처럼 처리하였다. 출신지의 경우 ‘제주’, ‘도외(서울)’처럼 정확하게 지역을 밝힌 경우에는 지역을 표기하였지만, 제주 출신이 아니며 지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도외’라고 표기하였다. 또 제주도민 가운데 이주민의 경우는 ‘제주(이주민)’처럼 구분하였다.
6. 실시간 상담 진행으로 답변에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덧붙였다. 노랫말이나 시, 글 한 편 등 많은 양을 제주어로 대역하거나 감수한 경우는 지면상 모든 내용을 신지 못하고 일부분만 실었다.
7. 이용객의 지역적 분포는 제주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306명(76%), 도외 거주자는 91명(23%)이었다. 제주 지역 거주자 중에는 이주민 16명(4%)이, 도외 거주자 중에는 외국인 6명(2%)이 각각 포함되었다.
6.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57명(3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0대 86명(21%), 50대 56명(56%), 40대 54명(13%), 60대 17명(4%), 70대 11명(3%), 10대 6명(1%) 순이었다.
7. 성별로는 남성이 206명(51%), 여성이 196명(49%)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한눈에 보는 2020년 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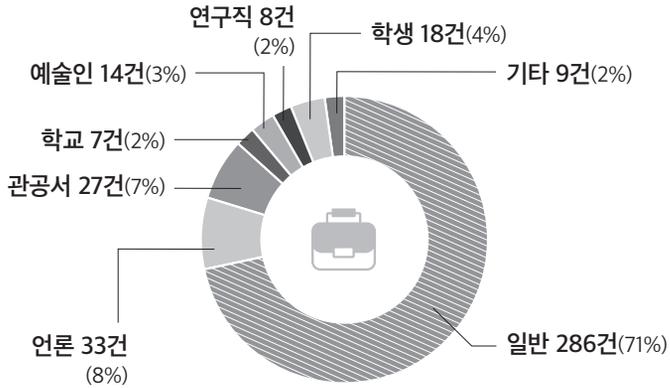
상담 기간: 2020. 1. 1.~2020. 11. 30. 상담 건수: 총 402건

직업	건수	지역	건수	성별	건수	세대	건수	상담 방법	건수	질문 유형	건수
일반	286	도내 (도민)	290	여성	196	10대	6	전화	244	단어 (표제)	115
언론	33	도내 (이주민)	16	남성	206	20대	157	전자 우편	138	단어 (제표)	53
관공서	27	도외	85			30대	86	문자	7	구와 문장 (표제)	66
학교	7	도외 (외국인)	6			40대	54	대면	12	구와 문장 (제표)	19
예술인	14	알 수 없음	5			50대	56	기타	1	뜻풀이	39
연구직	8					60대	17			표기	51
학생	18					70대	11			어원과 지명	21
기타	9					미상	15			문법과 발음	15
										기타	23
합계	402		402		402		402		402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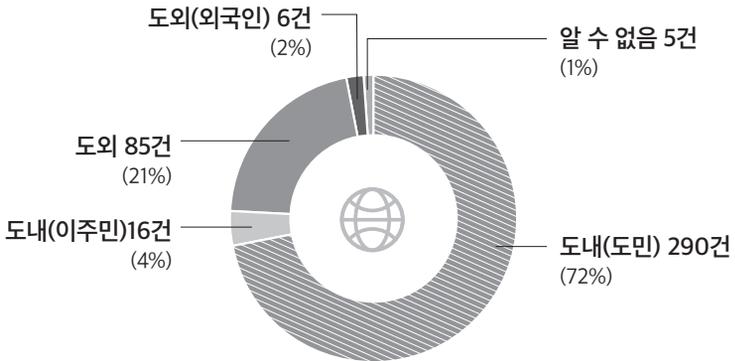
※ (표제)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묻는 질문 유형이다.

(제표)는 제주어를 표준어로 묻는 질문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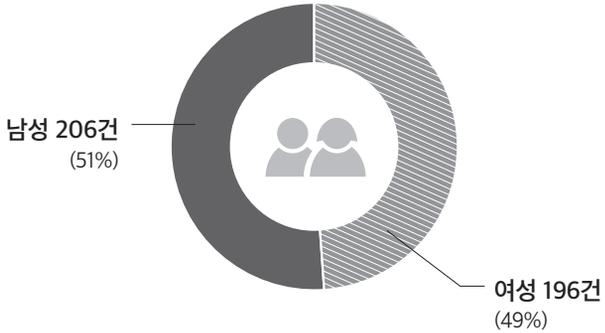
/// 직업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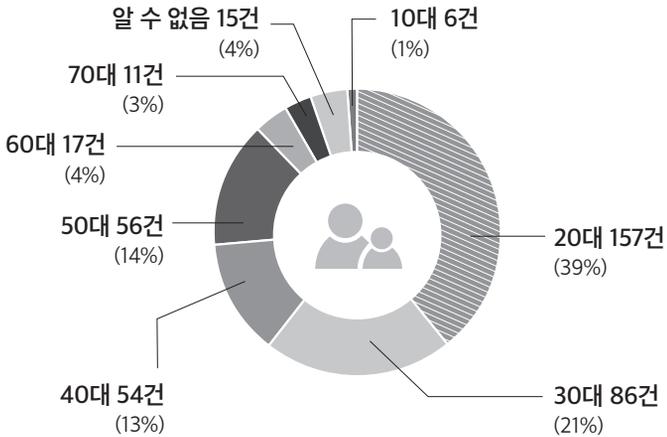
/// 지역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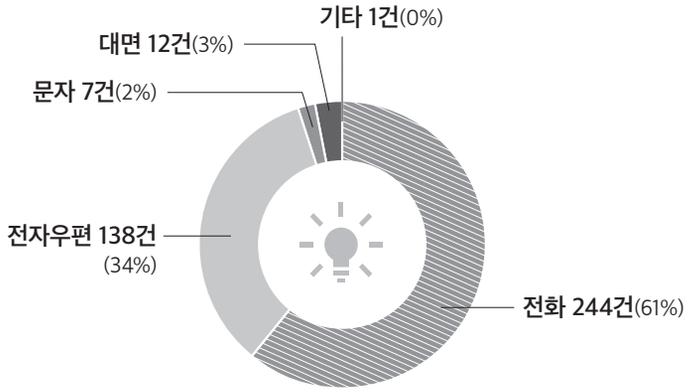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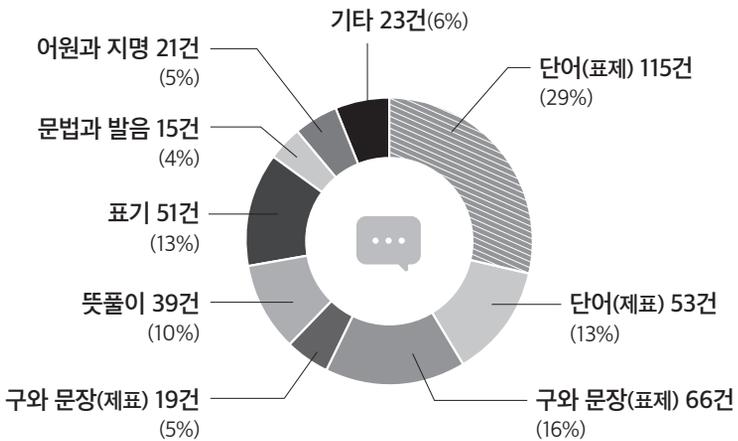
세대별



상담 방법



질문 유형



뽕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

1. 단어



표준어를 제주어로

1

문 ‘물고기’, ‘생선’, ‘바닷고기’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

답 ‘물고기’는 ‘물궤기’라고 하고 ‘생선’은 ‘생선’, 바닷고기는 ‘바당고기’, ‘바당궤기’, ‘바룻고기’, ‘바룻궤기’라고 합니다.

2

문 제주에서 민물고기를 ‘바당고기, 바룻고기’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외)

답 ‘바당’, ‘바르’는 ‘바다’에 해당하는 제주어이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바당고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민물고기’의 제주어는 ‘민물궤기’입니다.

3

문 꾸지뽕나무 열매를 ‘틀’이라고 하나요?(문○○, 60대, 여, 제주)

답 꾸지뽕나무 열매는 ‘콧낭으름’, ‘콧간절귀’, ‘콧가시낭으름’이라고 합니다. ‘틀’은 산딸나무 열매 이름입니다.

4

문 ‘뽕소라’의 제주어는 ‘구쟁이’가 맞나요?(김○○, 30대, 여, 도외)

답 요즘 ‘소라’를 ‘뿔소라’라고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라’라고 해야합니다. ‘소라’를 제주에서는 ‘구쟁기’, ‘구제기’, ‘구쟁이’, ‘고동’이라 합니다.

※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동물명집》(1997)에 따르면, ‘소라’는 ‘소라과’로, ‘뿔소라’는 ‘뿔소라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라’와 ‘뿔소라’는 다른 종입니다.

5

문 ‘성계’의 제주어는 ‘퀴’가 맞나요?(김○○, 30대, 여, 도외)

답 ‘퀴’, ‘귀’, ‘쿠살’, ‘구살’이라 합니다. 한편 ‘성계’와 비슷한 ‘말똥성계’는 ‘شم’이라고 합니다.

6

문 ‘옹알이’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남, 제주)

답 ‘옹알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따로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놀 때 내는 소리를 흉내낸 말로 ‘아공’이 있습니다.

7

문 ‘청렴하다’에 어울릴 만한 제주어는 뭐가 있을까요?(○○○, 40대, 남, 제주)

답 ‘청렴하다’의 ‘청렴’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냥 써서 ‘청렴하다’나 ‘청렴허다’로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찾는다면 ‘깨끗하다’의 제주어인 ‘깨끗허다’, ‘크쿨 허다’가 어울

릴 것 같습니다.

8

문 ‘딸꾹질’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50대, 남, 제주)

답 ‘툄곡지’, ‘툄고지’, 턄국지’라고 합니다.

9

문 ‘먼저’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몬여’, ‘몬예’, ‘몬처’, ‘몬첨’, ‘몬저’입니다.

10

문 ‘더럽다’, ‘지저분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더럽다’는 ‘더럽다’, ‘데럽다’, ‘덜럽다’, ‘덜롭다’라 하고, ‘지저분하다’는 ‘게더분ㅎ다’라고 합니다.

11

문 ‘궁금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굸굸하다’, ‘궁굸하다’입니다.

12

문 ‘이끼’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눗’입니다.

13

문 '미끄럽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민드럽다', '민지럽다', '민치럽다'라고 합니다. 한편, '미끄러지다'는 '느끼리다', '녕끼리다'라고 합니다.

14

문 '가운데'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가온데', '가운되', '가운디'입니다.

15

문 '벌써'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벌써', '벌쓰', '불쓰', '불썸'입니다.

16

문 '가시'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물고기의 잔뼈를 나타내는 '가시'는 제주에서도 '가시'라고 합니다.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인 '가시'는 제주에서 '장버렁이', '티'라고 합니다.

17

문 '바닥'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바닥', '창'입니다. 예를 들면 '방바닥', '밭창'처럼 쓰입니다.

18

문 ‘가끔’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가끔’은 그냥 표준어 ‘가끔’을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툼툼이’의 뜻을 가진 ‘트멍에’가 있습니다.

19

문 ‘친구’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친구’, ‘벗’입니다.

20

문 ‘이름’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이름’, ‘일름’, ‘일름’, ‘일흠’입니다.

21

문 ‘(눈으로)보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베리다’, ‘보다’입니다.

22

문 ‘일찌감치’, ‘일찌거니’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일찌감치’는 제주에서도 ‘일찌감치’라고 합니다. ‘일찌거니’는 ‘일찌거니’, ‘일찌갱이’라고 합니다.

23

문 ‘창고(물건을 보관하는 곳)’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창고’는 한자어 ‘창고’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끔 ‘창퀘’라 하기도 합니다. ‘꽁’이나 ‘곶간’의 의미로 쓰는 제주어 ‘고꽁’은 표준어 ‘고방’에 해당하며 ‘퀘꽁’, ‘앙꽁’이라고도 합니다.

24

문 ‘마음’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므슴’, ‘므심’, ‘므음’입니다.

25

문 ‘잠잠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속숨ħ다’, ‘속숨ħ다’, ‘속심ħ다’, ‘즘즘ħ다’입니다.

26

문 ‘알리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알루다’, ‘알리다’입니다.

27

문 ‘바꾸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바꼬다’, ‘바꾸다’입니다.

28

문 '낫설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낫서톨다', '낫설다'입니다.

29

문 '요즘'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요즘'은 '요즘'으로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요지금', '요지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요즘'의 원말인 '요즈음'과 대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

문 '주머니'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주머니', '주멩기', '주멩이', '줍치'입니다. 호주머니는 '게와'라고 합니다.

31

문 '깊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지프다'입니다.

32

문 '높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노프다'입니다.

33

문 ‘마을’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ㅁ슬’, ‘ㅁ실’, ‘ㅁ을’입니다.

※ ‘마을’의 고어는 ‘ㅁ숯’로 반치음(ㅅ)이 ‘ㅁ’으로 변화한 형태가 ‘ㅁ슬, ㅁ실’이고, 반치음이 탈락한 형태가 ‘ㅁ을’입니다.

34

문 ‘고을’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고을’ 혹은 ‘골’이라고 합니다.

35

문 ‘나누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ㄴ노다’, ‘ㄴ누다’, ‘ㄴ누다’입니다.

36

문 ‘갓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갓다’, ‘궂다’, ‘앗다’, ‘웃다’입니다.

37

문 동물을 셀 때의 단위인 ‘마리’를 제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머리’, ‘ㅁ리’라고 합니다. 사람 이외의 동물의 수효를 셀 때 쓰는 말로 한자어 ‘두’를 쓰기도 합니다.

38

문 ‘잡다’를 제주어로 ‘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잡히다’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잡다’는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아니하다’의 뜻일 때 ‘심다’라고 합니다. ‘잡히다’가 사동의 뜻으로 ‘잡게 하다’로 쓰이면 ‘심지다’, 피동으로 ‘잡힘을 당하다’로 쓰이면 ‘잡히다, 쥘히다’가 됩니다.

39

문 ‘보다’는 제주어로 ‘베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보이다’, ‘보여주다’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보이다’는 ‘베우다’, ‘뵈우다’라고 하고, ‘보여주다’는 ‘베와주다’, ‘뵈와주다’라고 합니다.

40

문 의성어 ‘재잘재잘’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자작자작’, ‘조잘조잘’이라고 합니다. 한편 ‘재잘거리다’는 ‘자작거리다’, ‘잠베질헛다’, ‘잠벙이질헛다’, ‘잠불리다’라고도 합니다.

41

문 ‘머리’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머리’입니다. ‘머리’를 속되게 이르면 ‘데가리’, ‘데멩이’라고 합니다.

42

문 ‘부드럽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부드럽다’입니다. 옛 문헌에도 ‘부드럽다’로 나타납니다.

43

문 ‘포근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포근하다’입니다. 한편 ‘폭하다(겨울 날씨가 펍 따뜻하다)’는 ‘폭하다’, ‘폭허다’로 나타납니다.

44

문 ‘달콤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들콤하다’, ‘들큼하다’입니다.

※ ‘달다’ 계열의 어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달다: 둘다

달착지근하다: 둘착지근하다

달코롬하다: 둘코롬하다, 둘크롬하다

달콤하다: 둘콤하다, 둘큼하다

45

문 ‘활썸’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활썸’, ‘홀썸’, ‘훤썸’입니다.

46

문 '무섭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무섭다', 'ㅁ슴다', 'ㅁ섭다', 'ㅁ슴다' 입니다.

47

문 '개', '돼지', '말', '소'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제주)

답 '개'는 '개', '돼지'는 '도새기' · '도야지' · '돛', '말'은 '말', '소'는 '쉐'라고 합니다.

48

문 '푸르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푸리다'입니다.

※ '푸르다' 계열의 어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푸르다: 푸리다

푸르무레하다: 푸리릉ㅎ다

푸르스름하다: 푸리스릉ㅎ다

퍼렇다: 퍼렁ㅎ다

49

문 양을 나타내는 '적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족다'입니다.

※ '적다[少]'는 고어 '적다'가 '적다' > '적다'의 변화를 거친 어형입니다.

50

문 글을 ‘적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죽다’, ‘적다’입니다.

※ ‘적다’는 고어 ‘덕다’가 ‘덕다 > 적다 > 적다’로 변화한 말입니다.

51

문 ‘쓰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쓰다’, ‘씨다’입니다.

※ ‘쓰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뜻이든 제주어에서는 ‘쓰다’, ‘씨다’로 나타납니다.

52

문 ‘달리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들리다’ 또는 ‘들다’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다’는 표준어 ‘달다’와 대응하는 말로 ‘빨리 뛰어가다’는 뜻입니다.

53

문 ‘뛰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튀다’, ‘뛰다’입니다.

54

문 ‘나비’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제주에서도 ‘나비’라고 합니다.

55

문 '옆'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옻', '옻'입니다. '옆이나 가장자리'의 뜻으로 '에옻', '어옻'이 쓰이고, '곶'은 '즈곶', '즈곶', '저곶', '저곶' 등으로 나타납니다.

56

문 '앞'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쩍', '쩍'입니다. 합성어를 이룰 때는 '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갯앞'을 '유쩍', '유입'이라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

문 '가루'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ㄹ', 'ㄹ'입니다.

58

문 '밖'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밖'입니다. '밖'의 고어는 '밖'이고 '바깥'은 제주에서 '베곶', '베곶'이라고 합니다.

59

문 '꽃길'을 제주어로 '꽃질'이라고 하나요? '꽃길만 걸으세요' 할 때 '꽃길'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50대, 여, 제주)

답 '꽃질', '고장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처럼

사용할 때는 ‘꽃길’ 대신에 ‘고운 길’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60

문 ‘이승’, ‘저승’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이승’은 ‘이승’·‘이싱’, ‘저승’은 ‘저승’·‘저싱’이라고 합니다.

※ ‘이승’의 고어는 ‘이싱’, ‘저승’의 고어는 ‘저싱’입니다.

61

문 ‘잠자리’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김○○, 50대, 여, 제주)

답 ‘잠자리’의 제주어는 아주 많습니다. 나열하면, ‘물자리’, ‘물짬’, ‘밤부리’, ‘밥주리’, ‘밥주어리’, ‘산태’, ‘산태비’, ‘안진방석’, ‘오중에’, ‘웅짬’, ‘잘’, ‘즌자리’, ‘한다바리’ 등입니다.

62

문 ‘으스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으스하다’·‘오시록하다’·‘오소록하다’입니다.

63

문 ‘어른’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어룬’·‘어른’입니다.

※ ‘어룬’의 고어는 ‘얼운’으로 나타납니다.

64

문 ‘채채기’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헛갱이’, ‘햇강이’, ‘햇갱이’, ‘헛정이’입니다.

65

문 제주어에서 수사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하나	흐나, 하나
둘	둘
셋	셋, 싯, 서이
넷	넷, 닛, 너이
다섯	다섯, 다숫, 다숫
여섯	여섯, 으숫, 으숫
일곱	일곱
여덟	으답, 으덥
아홉	아홉, 아홉
열	열
스물	수물, 쑤물
서른	서른
마흔	마흔, 마은
쉰	쉰
예순	예순, 예쑤
일흔	일흔, 일은

표준어	제주어
여든	으든, 여든
아흔	아은, 아흔

66

문 ‘깜쪽같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깜쪽ㄴ뜨다’, ‘깜쪽ㄴ뜨다’입니다.

67

문 ‘상점’ 말고 ‘물건 파는 곳’을 말하는 제주어가 따로 있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제주에서도 표준어처럼 ‘가게, 상점’라고 합니다. 한자어 ‘점방(店房) [점뽕]’을 쓰기도 합니다.

68

문 밥그릇의 뚜껑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50대, 남, 제주)

답 ‘가지깁이’ 또는 ‘개지’라고 합니다.

69

문 ‘고기국수’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남, 제주)

답 ‘궤기국시’, ‘궤기국쉬’라고 합니다.

70

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봄	봄
여름	여름, 으름
가을	ㄱ슬, ㄱ실, ㄱ을
겨울	겨을, 저슬, 저실, 저을

71

문 '심심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심심햅다', '심심허다'입니다.

72

문 '외롭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웨롭다'입니다.

73

문 '쓸쓸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20대, 여, 제주)

답 '쓸쓸햅다', '쓸쓸허다'입니다.

74

문 ‘썰렁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20대, 여, 제주)

답 ‘썰렁헝다’, ‘썰렁허다’입니다.

75

문 ‘수선화’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김○○, 50대, 여, 제주)

답 ‘물마농고장’이라고 합니다.

76

문 ‘상처’, ‘헌데’를 의미하는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상처’, ‘상치’라고 합니다. ‘헌데’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헝리’입니다. ‘헝리’는 ‘헝다’에서 온 말입니다.

77

문 ‘즐기다’와 ‘누리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를 알려 주세요.(○○○,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즐기다’는 ‘즐기다’, ‘누리다’는 ‘누리다’처럼 표준어와 같은 어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78

문 제주어로 다섯 손가락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박○○, 2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엄지	어금손ㄴㄹ, 엄지손ㄴㄹ
검지	안주웨기(손ㄴㄹ), 아금지(손ㄴㄹ), 안주와기(손ㄴㄹ), 언주에기(손ㄴㄹ)
중지	상손ㄴㄹ, 장손ㄴㄹ
약지	노니에기(손ㄴㄹ), 노네기(손ㄴㄹ), 노널웨기(손ㄴㄹ), 노니와기(손ㄴㄹ)
새끼	생끼손ㄴㄹ, 새끼손ㄴㄹ

79

문 ‘꽃’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꽃’, ‘고장’입니다.

80

문 ‘굴’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굴’입니다. ‘병굴’을 ‘벤줄’, ‘뽕굴’이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81

문 ‘눈’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눈’입니다.

82

문 ‘구경’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귀경’입니다.

83

문 ‘시원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시원하다’, ‘시원허다’로 말합니다.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의 뜻이라면 ‘시원하다’, ‘시원허다’입니다. 또 ‘말이나 행동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라는 뜻이면 ‘삭삭하다’가 됩니다.

84

문 ‘힐끔’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힐끔’은 의태어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힐끔’과 비슷한 어휘로 ‘힐끗’, ‘히뜩’ 등이 있는데 제주어도 그냥 ‘힐끗’, ‘히뜩’으로 쓰면 됩니다.

85

문 ‘산들산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산들산들’, ‘간들간들’, ‘건들건들’입니다.

86

문 ‘빼꼼’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빼꼼’은 의태어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빼꼼’, ‘빼죽’, ‘비쭈’ 등은 표준어 형태와 같습니다.

87

문 ‘수영하다’ 할 때 ‘수영’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수영’은 한자이므로 그냥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표준어 ‘헤엄치다’의 제주어로는 ‘헤엄치다’, ‘히엄치다’, ‘히엄치다’, ‘힘치다’가 있습니다. ‘히다’는 ‘헤다’의 제주어입니다.

88

문 ‘사랑’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40대, 여, 도외(전남))

답 ‘사랑’, ‘스랑’입니다.

89

문 ‘설거지’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60대, 남, 제주)

답 ‘설름질’, ‘서름질’이라고 합니다. ‘설거지하다’보다는 ‘그릇 시치다’, ‘그릇 설르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표준어로 ‘그릇 씻다’라는 뜻입니다.

90

문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할 때 ‘하염없이’를 제주어로 바꾸고 싶은데 ‘굳작’은 어떤가요?(○○○, 40대, 여, 제주)

답 ‘하염없이’는 제주에서도 ‘하염없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굳작’은 ‘곧장’, ‘계속’의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하염없이’와는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91

문 ‘우울하다’의 의미를 ‘물투름하다’를 써도 될까요?(○○○, 40대, 여, 제주)

답 ‘우울하다’의 ‘우울’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 ‘우울하다’ 또는 ‘우울허다’라 하면 됩니다. ‘물투름하다’는 표준어 ‘시무룩하다’, ‘찌무룩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92

문 옷감을 세는 단위인 ‘필’을 제주어로 ‘통’이라고도 합니까? 설문대할망 설화 속에서 ‘통’이라고 하던데요.(김○○, 6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통’은 ‘동’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맹지백 등) ‘필’과 ‘동’은 다른 의미입니다. ‘필’은 옷감을 세는 단위이고 ‘동’은 옷감 등을 말아서 한 덩어리로 만든 묶음을 말합니다.

※ 통: ‘광목이나 옥양목, 당목 따위를 일정한 길이로 두루마리처럼 말아 놓은 것’을 말하는데 제주에서는 ‘동’이라고 합니다.

필: ‘일정한 길이로 말아 놓은 천 문치를 세는 단위인 ‘필(疋)’은 제주어에서 ‘필’ 또는 ‘발’이라고 하는데 보통 40자를 말합니다.

93

문 ‘a 또는 b’식의 문장을 제주어로 바꾸고 싶은데 ‘또는’의 제주어

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또는’은 제주에서도 ‘또는’이라 씁니다.

94

문 기타의 사항, 기타 신분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는 어떤 제주어로 같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기타’는 제주에서도 ‘기타’라고 합니다.

95

문 ‘자신’은 한자어인데, 무슨 제주어로 바꿔 쓸 수 있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즈신’입니다. ‘자신’과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녁’은 ①당신, ②자기 자신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96

문 ‘완전히’는 제주어로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완전히’는 한자어 ‘완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완전히’의 ‘히’가 ‘이’로 발음되어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97

문 ‘바다’는 제주어로 ‘바당’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물고기는 ‘바당궤

기'가 아닌 '바릇궤기'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바다'를 뜻하는 제주어는 '바당', '바릇', '바르' 다 쓰입니다. '물고기'의 제주어는 '물궤기'입니다. 바닷고기는 '바당궤기, 바릇궤기'라고 합니다.

98

문 표준어 '하얏다', '거멓다', '노랑다', '붉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하얏다(희다)	하양ㅎ다, 하양허다(히다)
거멓다(검다)	거멍ㅎ다, 거멍허다(검다)
노랑다(누르다)	노랑ㅎ다, 노랑허다(누리다)
벌겋다(붉다)	벌경ㅎ다, 벌경허다(붉다)

99

문 '~을 보고 반하다' 할 때 '반하다'의 제주어가 있나요?(○○○, 50대, 여, 도외)

답 '반하다'의 제주어는 '반ㅎ다', '반허다'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므심에 들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므심'은 제주어로 '마음'을 뜻합니다.

100

문 ‘고맙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고맙다’는 제주에서도 ‘고맙다’라고 합니다.

101

문 ‘싱싱한 물고기’, ‘싱싱한 채소’ 할 때 ‘싱싱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싱싱허다’, ‘싱싱흐다’라고 합니다. ‘싱싱흔 물궤기’, ‘싱싱흔 채소’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02

문 ‘벨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김○○, 50대, 여, 제주)

답 ‘벨나다’, ‘벨허다’라고 합니다.

103

문 ‘바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윤○○,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바쁘다’는 제주에서도 ‘바쁘다’라고 합니다. ‘쉴 사이 없이 바쁘다’는 뜻으로 ‘저를지다’, ‘즈르지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104

문 ‘분주하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윤○○,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분주하다’는 ‘분주허다’, ‘분궤허다’라고 합니다.

105

문 ‘부엌’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이○○, 70대, 남, 도외(서울))

답 ‘정제’, ‘정지’ 또는 ‘부억’이라고 합니다. 성산을 지역에서는 특히 별채로 따로 만든 부엌인 경우는 ‘공깃간’이라 합니다.

106

문 ‘소리쟁이’ 풀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문○○, 60대, 여, 제주)

답 수영의 한 종류로 ‘베염술’, ‘생게’ 등으로 불립니다.

107

문 ‘동방사니’ 풀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문○○, 60대, 여, 제주)

답 ‘동방사니’는 사초과에 딸린 ‘방동사니’가 아닌가 합니다. ‘방동사니’는 ‘산뒤삼촌’, ‘산뒤스촌’, ‘산뒤제완이’라고도 합니다.

108

문 ‘돌고래’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돌고래를 뜻하는 제주어가 하나 아니라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허○○, 30대, 여, 도외)

답 ‘돌고래’는 제주어로 ‘곰세기’, ‘곰수기’, ‘수웨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제주어가 여러 개인 이유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109

문 ‘무작정’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40대, 여, 제주)

답 ‘무장’이라고 합니다.

110

문 ‘일단’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40대, 여, 제주)

답 ‘일단’은 한자어로 제주에서도 ‘일단’이라고 합니다.

111

문 ‘바람’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보름’으로 알고 있어서 검색하니 ‘보름달’이라는 뜻이라고 나옵니다.(○○○, 40대, 남, 광주)

답 ‘바람’의 제주어는 ‘브름’, ‘브롬’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의 고어는 ‘브롬’입니다. 한편 음력 15일인 ‘보름[望]’은 ‘보롬’, ‘보름’으로 나타납니다. ‘보름’의 고어는 ‘보롬’입니다.

112

문 ‘반짝반짝’은 제주어로 무엇인가요? 콘서트 이름을 지을건데, ‘반짝반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40대, 남, 제주)

답 ‘펠롱펠롱’이라고 합니다. ①눈을 깜빡이는 모양. ②별이 반짝이는 모양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펠롱콘서트’는 어떤가요?

113

문 고양이가 우는 소리인 ‘야옹’은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박○○, 20대, 남, 제주)

답 ‘메옹’, ‘아옹(표준어)’이라고 합니다만 의성어의 경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제주에서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14

문 ‘앗싸’처럼 기분이 좋을 때 외치는 제주어 감탄사는 뭐가 있을까요?(○○○, 40대, 남, 제주)

답 기분이 좋을 때 외치는 감탄사는 따로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이여싸(이여차, 영차)’는 어떨까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기운을 돋우려고 함께 내는 소리입니다.

115

문 ‘그렇지’처럼 상대방 말에 호응하면서 맞장구치는 제주어는 뭐가 있을까요?(○○○, 40대, 남, 제주)

답 ‘기라’, ‘기우다’, ‘맞아’, ‘맞수다게’, ‘게메’, ‘기지’ 등이 있습니다.

제주어를 표준어로

1

문 ‘간절귀’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60대, 여, 제주)

답 ‘간절귀’는 보통 ‘개똥참외’를 말하며, ‘간잘귀’, ‘간절미’라고도 합니다.

2

문 ‘물토새기’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오○○, 50대, 여, 제주)

답 ‘물토새기’는 표면적으로 해석한다면 ‘물’과 ‘돼지’의 뜻이지만, 표준어 ‘군소’에 해당합니다. ‘물토새기’는 달리 ‘굴멍이’, ‘물똥’이라 하기도 합니다. 한편 ‘감성돔’을 ‘물토새기’라 하기도 합니다.

3

문 ‘술박’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60대, 여, 제주)

답 ‘술박’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없는 듯합니다. ‘술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합니다. 달리 ‘속박’, ‘손박’, ‘좁박’, ‘좁박세기’라고도 합니다.

4

문 ‘줏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줏다’입니다. 물레를 돌려 부드러운 섬유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5

문 ‘거멍하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거멍다’입니다.

6

문 ‘부트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불다’입니다.

7

문 ‘어프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엷다’입니다. 밑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8

문 ‘주끄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짚다’입니다. 특히 개가 소리는 내어 짚는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9

문 ‘기영하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그러하다’입니다.

10

문 '노랑하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노랗다'입니다.

11

문 '동구랑하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동그랗다'입니다.

12

문 '만허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많다'입니다.

13

문 '수랑하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기름하다'입니다. '수랑하다'는 달리 '수람하다', '수롬하다', '술람하다'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길다' 계열의 어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길다: 길다, 걸다, 질다

기름하다: 수람하다, 수랑하다, 수롬하다, 술람하다

길쭉하다: 질쭉하다

길찍하다: 질딱하다, 질찍하다

길디길다, 기나길다: 진진하다

14

문 ‘과랑ㅎ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과랑다’입니다.

15

문 ‘개꺏’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갯꺏’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표준어로는 ‘갯가’입니다.

16

문 ‘웃세’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엿새’입니다.

17

문 ‘땀받이’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땀받이’입니다. 땀을 받으려고 옷 속에 받친 헝겊 등을 말합니다.

18

문 ‘브르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바르다’입니다. ‘바르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① 풀이나 물 같은 액체를 칠하다
- ② 속 알맹이를 집어내려고 겉을 쪼개다

19

문 '거끄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꺾다'입니다. '단단한 물체를 구부려 다시 펴지지 않게 하거나 아주 끊어지게 하다'는 의미의 '꺾다'를 제주에서는 '거끄다'라고 합니다.

20

문 '숯'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숯'입니다.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는 그릇인 '숯'을 제주에서는 '숯'이라고 합니다.

21

문 '질메'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길마'입니다.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엮는 기구를 말합니다.

22

문 '넉동베기'는 무엇인가요?(한○○, 2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넉동내기'에 대응하는 어휘입니다. '넉동베기'는 '말 넉동을 내도록 정한 옷놀이'를 말합니다. '넉둑베기', '넉동베기'라고도 합니다.

23

문 ‘꼬닥’이 ‘천천히’라는 제주어인가요?(○○○, 30대, 남, 도외)

답 ‘꼬닥꼬닥’은 여유있게 천천히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표준어 ‘까딱까딱’에 대응합니다. ‘꼬닥’이 ‘천천히’의 제주어는 아니며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천천히’를 유추하는 것 같습니다.

24

문 ‘차조’와 ‘차좁쌀’은 같은 말인가요? ‘호린조’를 표준어로 어떤 데는 ‘차조’로, 어떤 데는 ‘차좁쌀’로 썼길래 궁금합니다.(○○○, 40대, 남, 제주)

답 엄밀히 말하면 ‘차조’는 찰기가 있는 좁쌀이 맺히는 식물이고 ‘차좁쌀’은 차조의 열매를 찢은 쌀이 되지만 ‘좁쌀’을 ‘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차좁쌀로 지은 밥을 ‘호린좁쌀로 지은 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린조로 지은 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5

문 ‘빙완’은 표준어로 무엇인가요?(백○○, 20대, 남, 제주)

답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인 병원을 제주에서는 ‘병원’, ‘빙원’, ‘빙완’이라고 합니다.

26

문 제주어 ‘모냥’은 표준어로 무엇인가요?(백○○, 20대, 남, 제주)

답 ‘모양’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나타내는 ‘모양’의 제주어는 ‘모냥’입니다.

27

문 제주어 ‘잇날’은 표준어로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옛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하는 ‘옛날’의 제주어는 ‘잇날’, ‘옛날’ 등입니다.

28

문 제주어 ‘흥사’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흥사’입니다. 흥하고 언짢은 일인 ‘흥사’를 제주어로 ‘흥시’라고 합니다.

29

문 제주어 ‘부글레기’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거품’에 해당되며, 해초의 공기주머니도 ‘부글레기’, ‘부글레기’라고 합니다.

30

문 제주어 ‘데멩이’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데가리’입니다. 동물의 머리나 사람의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더망세기’, ‘데가리’, ‘데망생이’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31

문 ‘독새기’는 ‘달걀’인가요, ‘돌멩이’인가요?(한○○, 20대, 여, 도외)

답 ‘독새기’는 ‘독(毒)’의 ‘애기’라는 뜻으로 ‘달걀’을 말합니다. ‘돌멩이’의 제주어는 ‘돌새기’, ‘돌생기’, ‘돌생이’, ‘독멩이’ 등으로 나타납니다.

32

문 마미조와 ‘눌’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40대, 남, 제주)

답 ‘마미조’는 ‘모자반’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자반’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몸’, ‘몰망’입니다. ‘눌’은 표준어 ‘가리’에 해당합니다.

33

문 제주어 ‘새’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40대, 남, 제주)

답 ‘띠’입니다. 벗과의 여러해살이풀을 통틀어 ‘새’라고 하며 ‘새’에는 ‘띠’와 ‘역새’ 등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띠’를 ‘새’라고 합니다. 지붕을 이거나 이엉을 엮는 데 사용됩니다. ‘새’의 길이가 짧은 것은 ‘각단’이라고 하는데, 이 ‘각단’으로는 ‘집줄’을 만들기도 합니다.

34

문 ‘멘도롱하다’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20대, 여, 도외(서울))

답 ‘멘도롱하다’는 표준어 ‘매지근하다’에 해당합니다. ‘더운 기운

이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35

문 제주어 ‘대우리’가 ‘귀리’ 맞나요?(문○○, 60대, 여, 제주)

답 보리밭에서 많이 자라는 ‘대우리’는 귀리의 한 종류입니다.

36

문 ‘디딜깡’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50대, 남, 제주)

답 ‘부춘돌’이라고 합니다. ‘디딜깡’은 예전 변소에 가서 볼 일을 볼 때 다리를 디디고 앉게 되는, 기다란 발판을 말하는 제주어입니다. 발판이 나무로 되어 있으면 ‘부출’이라고 하고 돌로 되어 있으면 ‘부춘돌’이라고 합니다.

37

문 제주어 ‘상끗하다’가 ‘산뜻하다’가 맞나요?(○○○, 50대, 여, 제주)

답 ‘상끗하다’는 ‘산뜻하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38

문 ‘씻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제주어 형태 ‘씻다’만 놓고 보면 ①있다[有] ②씻다[洗]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39

문 식당 이름 중에 ‘물고랑’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표준어로 무슨 말인가요?(○○○, 60대, 여, 도외)

답 ‘물고랑’은 ‘물 ㄱ랑’으로 보입니다. ‘물 ㄱ랑’은 ‘연자매’, ‘연자방아’라는 뜻입니다. ‘물고랑’이라고 하면 ‘마구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40

문 ‘훗맛’이 ‘뒷맛’을 뜻하는 말이 맞나요?(○○○,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뒷맛’을 ‘훗맛’ 또는 ‘훗맛’이라고 합니다.

41

문 ‘듬북쟁이 어멍’이라는 시가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듬북쟁이’가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60대, 여, 제주)

답 ‘듬북쟁이’는 모자반의 일종인 ‘듬북’의 틈에서 자라는 계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 표준어 ‘털다리물맞이게’에 해당합니다.

42

문 ‘뺨찌’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50대, 남, 제주)

답 ‘뺨찌’를 일본어식으로 ‘뺨찌’라고 발음한 것 같습니다. 외래어 ‘편찌’로 딱히 우리말로 바꿀 단어는 없습니다.

43

문 ‘들러퀴다’가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10대, 남, 제주(이주민))

답 ‘들러퀴다’는 ‘함부로 덤비거나 거칠게 행동하다’, ‘뛰며 돌아다니거나 날 듯이 꺽충 뛰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표준어 ‘날뛰다’에 대응하는 어휘입니다.

44

문 ‘기십’은 표준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10대, 남, 제주(이주민))

답 ‘기십’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나 기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표준어 ‘담력’에 대응하는 어휘입니다.

45

문 ‘즈미지게 걷는 서귀포 예술길’에서 ‘즈미지게’는 표준어로 무슨 뜻인가요?(이○○, 40대, 여, 제주)

답 ‘재미나게’, ‘재미있게’의 제주어입니다. ‘재미나다, 재미있다’의 제주어는 ‘즈미지다’입니다.

46

문 ‘지꺼지게’는 표준어로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 표기하나요?
(이○○, 40대, 여, 제주)

답 ‘기쁘게’라는 뜻입니다. 표기는 ‘지꺼지게’라고 하면 됩니다.

47

문 제주어 ‘푸리룽하다’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50대, 여, 제주 (이주민))

답 ‘푸리룽하다’는 표준어 ‘푸르무레하다’에 해당합니다.

※ ‘푸르다’ 계통의 어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르다: 푸리다

푸르스름하다: 푸리스름하다

푸르무레하다: 푸리룽하다

48

문 ‘빌레’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현○○, 4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너럭바위’에 대응합니다. 지면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힌 돌을 말합니다.

49

문 ‘퀘양’은 표준어로 뭔가요? 귀여운 의미를 갖고 있나요?(○○○, 40대, 남, 제주)

답 ‘퀘양’은 표준어로 ‘고이’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고스란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0

문 ‘만장굴 강 풍치고’라는 문장을 들었는데, ‘풍치다’의 표준어는 뭔가요?(○○○, 30대, 여, 제주)

답 ‘풍치다’는 ‘과장되게 말하다’ 또는 ‘과장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맥상으로는 ‘만장굴 가서 놀고’라는 의미 같은데 앞뒤 문맥을 봐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

문 ‘제주바투리’에서 ‘바투리’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청○○, 70대, 남, 제주)

답 표준어로 ‘바탕’입니다. 즉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기초나 근본을 의미하는 제주어입니다.

52

문 ‘부절엇이’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40대, 여, 제주)

답 ‘부절엇이’는 표준어 ‘부절없이’인 것 같습니다.

53

문 제주어 ‘달코롬하다’는 표준어로 무슨 뜻인가요?(홍○○, 2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달콤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2. 구와 문장



표준어를 제주어로

1

문 ‘천천히 오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최○○, 40대, 남, 제주)

답 ‘천천이 읍서’, ‘놀멍놀멍 읍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문 ‘다음에 오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최○○, 40대, 남, 제주)

답 ‘다음에 읍서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문 코로나19로 관광객을 통제하기 위해 쓰려는 문구입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오라’고 독려할 때 제주어로 어떻게 바꾸나요?(최○○, 40대, 남, 제주)

답 ‘흐썸 잇당 코로나 꺾나결랑 읍서(예)’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문 ‘거기 서 있지 말고 앉던가, 짐이나 놓아라.’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제주(이주민))

답 ‘그디 상 잇지 말앙 앓든가, 짐이나 (알러레) 놓으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댓말로 ‘그디 상 잇지 말앙 앓든가 (알러레) 짐 내려 놓읍서/내려놉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알러레: '아래에'의 제주어

5

문 '이렇게 색깔이 예쁜 생선은 옥돔밖에 없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최○○, 30대, 여, 도외)

답 '이치룩 색이 고운 생선은 오토미벳기 엷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문 '옥돔이 최고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최○○, 30대, 여, 도외)

답 '오토미가 췌고다'입니다. '옥돔'을 달리 '생성, 생선, 솔라니, 솔레기' 등으로도 부릅니다.

7

문 '여기 와서 보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최○○, 30대, 여, 도외)

답 '이디 왕 봅서.'입니다.

8

문 '참 예쁘죠?'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최○○, 30대, 여, 도외)

답 '막 곱닥허지예?'입니다.

9

문 '냄새를 맡아봐라.'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남, 도외
(경북))

답 '내음살 마타보라.'라고 합니다.

10

문 '어디에 숨었니?'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남, 도외
(경기))

답 '어디레 곱아샤?'라고 합니다.

11

문 '여기 있었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남, 도외(경기))

답 '이디 이서나신게(잇어나신게).'라고 하면 됩니다.

12

문 '즐거우면(즐거웠으면) 됐습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50대, 여, 제주)

답 '즐거우민(즐거워시민) 뵈수다.'라고 합니다.

13

문 '사과나무에 열매 열려서 잘 나눠주는 것처럼'을 제주어로 뭐라
고 하나요?(장○○, 40대, 여, 제주)

답 '사과낭에 으름 올앙 잘 느뇌주는 거추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문 ‘수협 자랑 부탁드립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수협 자랑 부탁드리쿠다.’라고 합니다.

15

문 ‘바쁘십니까?’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바쁘시우파?’, ‘바쁘우파?’, ‘바쁘파?’라고 합니다.

16

문 ‘안녕하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안녕허우파?’라고 합니다.

17

문 ‘정겨운 한가위, 따뜻한 마음으로’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최○○, 40대, 남, 제주)

답 ‘정겨운 한가위, 따뜻한 믱심으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문 ‘환영합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환영한다’는 말은 따로 없나요?(○○○, 40대, 여, 도외)

답 ‘환영’이 한자어라서 ‘환영햐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은 ‘흔저 읍서’가 있는데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19

문 ‘반가워’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여, 제주)

답 ‘반갑다’라고 합니다. 손윗사람에게는 ‘반갑슴다’ 친구끼리는 ‘반가와’, ‘반가운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문 ‘힘든 게 있으면 나랑 반으로 나누자.’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심든 거 싯걸랑 나영 반으로(반착으로) 나누게.(갈르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문 ‘우리는 또 해낼 겁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우리는 또시 해낼 거우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

문 ‘모래가 검정색인 게 정말로 신기합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몰레가(모살이) 거명현 색인 게 춤말로 신기후우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문 ‘그림 같은 풍경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신○○, 20대, 여, 제주)

답 ‘그림(기림) ㄱ튼 풍경 노고록하게 베려볼 수 잇인(이신) 곳’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

문 ‘편히 쉬십시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의미로요.(○○○, 20대, 여, 도외)

답 ‘편안하게 쉽서.’, ‘편안하게 갑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25

문 ‘가을 햇살에 소들이 나른히 누워 쉬는 곳’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ㄱ을(ㄱ실, ㄱ실) 햇살에 쉼덜이 늘싹하게 누웁 쉬는 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문 ‘좋은 일이 생길 거야.’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좋은[존] 일이 생길 거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

문 '쌀쌀한 요즘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쌀쌀흔 요즘 따뜻하게 입엉 땡깍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

문 '감귤이 노랗게 익은 것을 보니 이제 겨울이 오나보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감귤이 노랑하게 익은 거 보난 이제 저슬(저실, 저을)이 오는 생이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

문 '쉬운 것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지.'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쉬운 건 엇어. 경헌덴(경헌덴) 허영 못할 것도 엇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문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다가올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심든 일은 잊어볼곡 다가올 좋은[존] 일만 생각헉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

문 ‘차가워진 몸과 마음, 미소와 온기로 따뜻하게 채우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씨늘헨 몸이영 므심(므음), 미소영 온기로 따듯하게 채웁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문 ‘지치고 힘들수록 따뜻한 말과 미소는 큰 힘이 됩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지치고 심들수록 따듯흔 말광 미소는 큰 심이 됩니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문 ‘걱정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행복은 매 순간 다가오길.’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걱정은 흘순간 넘어가곡 행복은 매 순간 다가와시민.’이라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34

문 ‘제주에서 보낸 한 알의 달콤함이 작은 위로이자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남, 제주)

답 '제주서 보낸 혼 알의 들코름헝이 죽은 위로영 행복헌 경험이 뒤
기를 바렘수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

문 '꽃이 하얗게 피었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꽃'은 '고장'이나 '꽃'이라고 하고 '하얗다'는 '하양하다', '히양하
다' 라고 합니다. '고장이/꽃이 하양하게/히양케 피엇저.'라고 하
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

문 '눈꽃이 하얗게 핀'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20대, 여, 제주)

답 '눈고장이 하양하게/히영케 핀'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

문 '오지 마세요.'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최○○, 40대, 남, 제주)

답 '오지 맙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

문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40대,
여, 제주)

답 '경헌 말은 허지 안헛저.', '경 곤지 안헛저(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

문 '따뜻한 우리 집'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40대, 남, 제주)

답 '따뜻한 우리 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

문 다음 문장들을 제주어로 알려주세요.(최○○, 3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몸통은 빨강고 꼬리는 노랑고, 이렇게 색이 고운 생선은 옥돔 밖에 없다.	몸통은 빨강호고 풀리는 노랑호고, 이치록 색이 고운 생선은 오 토미벳기 었다.
갓 잡아 싱싱할 때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좋지(맛있지). 옥돔 먹어는 봤어?	갓 잡아 싱싱홀 때 바로 먹는 게 질로 맛좋지(맛싣지). 오토미 먹어는 받?
이렇게 맛난 걸 못 먹다니. 생선도 못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치록 맛난 걸 못 먹다니. 생선도 못 먹으며 이디기장 와샤?
여기나 육지나 다 먹고 살기 힘들네.	이디나 육지나 다 먹영 살기 심든게.
요즘엔 잡기 힘들어 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요즘엔 심기 심들영 더 귀흔 몸이 뵈수다.
바람이 세서 오늘은 배가 못 뜨니 돌아가야겠어.	브름이 세영 오닐은 배가 못 뜨난 돌아가사키여.
둘이 사귀는 사이야?	둘리 사귀는 사이가?
둘이 좋아해?	둘리 좋아햐서?
잘 어울리는구만. 젊으니 좋네.	잘 어울림신게. 젊으난 좋다.

41

문 다음 문장들을 제주어로 알려주세요. (최○○, 3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그물로 잡으면 비닐 다 벗겨져서 못 써.	구물로 잡으면 비늘 다 벗겨정 못 쓰메.
힘들어도 전통방식으로 살살 잡으니까 비싼 값 받지.	심들어도 전통방식으로 슬슬 잡으난 빗난 값 받주.
태풍이 올라나 파도가 세서 돌아야겠어.	대풍이 오젠 험신가 놀 썰영 돌아가사키여.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게민 나가 거짓갈현텐 말가?
내 말 못 믿어?	나 말 못 믿으크냐?
태풍 때문에 오늘 배가 못 떠.	대풍 따문에 오닐 배 못 떠.
가까운 섬으로 피해야겠어.	가차운 섬으로 피혜사키여.
못 믿겠으면 혼자 배 타고 가던가.	못 믿으컬랑 혼자 배 탕 가든가.
이리 쪽 올라가면 산장이 하나 있으니 오늘은 거기서 자요.	이레 쪽 올라가민 산장이 하나 이시난 오닐은 그디서 자게마썸.
내일 날 밝으면 데리러 올테니.	닐 날 붉으면 들레 오크메.

42

문 다음 문장들을 제주어로 알려주세요. (최○○, 3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이리 와 앉아요. 거기 서 있다 귀하신 몸 바다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나지(큰일나니까).	이레 왕 앉읍서. 그디 상 잇당 귀헌 몸 바당에 털어지기라도 허민 큰일나주(큰일나난).

표준어	제주어
떨어지지 않게 다들 꼭 잡으세요.	떨어지지 안허게 다덜 꼭 심읍서.
보아하니 높은 양반인가봐?	베려 보난 노픈 양반인 거 닥은게?
생선이라고 다 같은 생선이 아니지.	생선이렌 다 ㄱ튼 생선이 아니주.
제주도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옥돔은 살이 탱탱하고 쫄깃쫄깃 최고지.	제주도 바당에서 ㄱ 잡앙 올린 오토미는 술이 트랑트랑ㅎ곡 쫄깃쫄깃 ㄱ고주.
옥돔회 한번 맛볼래(먹어볼래)? 바로 찢어줄까?	오토미회 ㅎ번 맛보젠(먹어보젠)? 막바로 찢어주카?
하늘을 보니 곧 태풍이 올 거 같네.	하늘을 보난 대풍 올 거 닥다.
제주도 옥돔이 좋으니 일부러 여기까지 직접 잡으러 오지.	제주도 오토미가 좋으난[조난] 역불로 이디ㄱ장 심으레 오주.
제주 옥돔이 최고야.	제주 오토미가 ㄱ고여.
그럼, 제일 통통하고 좋은 놈으로 잡아줄테니 기다려요.	계계, 질로 통통ㅎ곡 좋은[죤] 놈으로 잡아안네크메 지드립서.
제일 좋은 놈으로 잡아줄테니 조금만 기다리시게.	질로 좋은[죤] 놈으로 잡아주크메 ㅎ꿈만 지드리라(이시라).

43

문 전통한과를 파는 가게 이름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좋은 날에 먹는 음식이니 ‘좋은 날’이라고 하고 싶은데, 제주어로 무엇인가요?(○○○, 40대, 여, 도외(전남))

답 ‘좋은 날’은 제주에서도 ‘좋은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줄여서 ‘존 날’이라고도 합니다.

44

문 ‘한 마리’를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30대, 남, 제주)

답 ‘흔 마리’, ‘흔 머리’라고 하면 됩니다.

45

문 ‘여유 없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윤○○,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여유 없다’는 제주어로 ‘저를 엇다’, ‘저르 엇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

문 ‘~하고 싶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흐고 시프다’, ‘흐고프다’, ‘흐고정 허다’, ‘흐구정 허다’, ‘흐지 기롭다’, ‘흐지 그롭다’라고 합니다.

47

문 ‘어떻게 하면’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어땡 허민’, ‘어땡 흐민’입니다.

48

문 ‘날까요?’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나마쌌?’ , ‘나쿠과?’입니다.

49

문 ‘좋았다고’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좋앗덴’입니다.

50

문 ‘가서’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강’, ‘가근에’, ‘가근앵에’입니다.

51

문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다’ 할 때 ‘박혔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이○○, 70대, 남, 도외(서울))

답 ‘박히다’는 ‘백히다’, ‘백이다’로 사용합니다.

52

문 ‘뛰면서’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도르멍’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30대, 남, 도외)

답 ‘뛰다’의 제주어는 ‘튀다’이니, ‘튀멍’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도르멍’이라 한 것을 보면 ‘달다’의 제주어 ‘들다’의 활용형으로 보입니다. ‘들다’는 ‘ㄷ’ 불규칙 용언으로 자음 어미 앞에서는 ‘들지, 들게, 들꼭’처럼 ‘들-’이 되지만 모음 어미가 올 경우는 ‘ㄷ’이 ‘ㄹ’로 바뀌어 ‘들-’이 되어서 ‘들으난, 들으멍’처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ㄹ’은 ‘ㄷ’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받침인 ‘ㄷ’ 자리에 써야 합니다. 결국 ‘들으멍’이 되어야 합니다.

53

문 ‘~하거나’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흐나’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공부를 흐나 줌을 자나 흐나만 허라.(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나만 해라.)

54

문 ‘~하며’, ‘~한다면’, ‘~하고’를 나타낼 수 있는 제주어가 궁금합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하며	~흐멍
~한다면	~흐덴 흐민
~하고	~흐곡, ~흐고

55

문 ‘사랑한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사랑한다’는 ‘스랑흐다(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특pecially 귀여워하며 사랑하다’는 의미로 중세국어 ‘괴다’에서 온 제주어 ‘퀘다’가 있습니다.

56

문 다음 두 가지 표준어를 제주어로 알고 싶습니다.(심○○, 연령 미상, 남, 지역 미상)

배달하는 사람 / 전달자

답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하는 사람’, 전달자는 ‘전달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과 ‘전달’은 한자 어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심바람하는 사람(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7

문 다음 어휘들과 관련된 제주어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희○○, 3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아름다운	아름다운 ※ 고운: 곱닥훈, 곱들락훈
예쁜	예쁜
깨끗한	깨끗훈, 꺄꺄훈
맑은	맑은
푸르른	푸리롱훈
오래오래	오래오래
소중한	소중훈, 소중한
지키고 싶은	직히고 시픈, 직히고정 훈, 직히기 기루운
지키다	지키다, 직허다
보호하다	보호하다, 보호허다

표준어	제주어
다함께	훈디, 훈디
함께하다	훈디훈다
힘내자	심내게, 심내자
해너	해너, 즈너, 즈수, 즈네

58

문 방탄소년단의 ‘봄날’ 노래를 제주어로 부탁드립니다.(원○○, 2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눈꽃이 떨어져요	눈꽃이 털어지멘마씨
또 조금씩 떨어져요	또시 흥꿈씩 멀어점신게마씨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정 허다 (보고정 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정 허다 (보고정 허다)
얼마나 기다려야	얼메나 지들려사
또 몇 밤을 더 새워야	또시 멧 밤을 더 새와사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늘 봐지카이 (늘 봐지카이)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지카이 (만나지카이)

59

문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노래를 제주어로 부탁드립니다.(원○○, 2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에이 괜찮지만은 안허여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이별을 마주헌덴 허는 건

표준어	제주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에	오닐이랏던 우리의 어제
더는 내일이 없다는 건	더는 닐은 엇텐 허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아프긴 허여도 더 몽케시민
상처가 덧나니까 Ye	헐리가 덧나난 Ye
널 사랑했고 사랑 받았으니	늘 스랑흐였고 스랑 받아시난
난 이걸로 됐어	난 이걸로 뒤엇저

60

문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노래를 제주어로 부탁드립니다.
다.(임OO, 2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나로 말할 것	나로 곱을 거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ㄱ뜨면 즈신감 이신 여즈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곤젠 허민 느낌 이신 여즈
자신 있으면 나를 따라 해도 돼	즈신 이시민 나를 따라 흐여도 뒤
뒤따라 와 뒤따라 와	조름에 와 조름에 와

61

문 '용두암의 전설'을 제주어로 부탁드립니다.(이OO, 2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아주 먼 옛날. 제주도 바다 속	완전 먼 옛날. 제주도 바당 소곱
용궁에서 용이 될 이무기를	용궁이서 용이 뒤 이무기를
선발하기 위한 경연이 열렸다.	선발허는 경연이 열럿저.

표준어	제주어
<p>모든 이무기들이 용이 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뽐냈지만, 한 이무기는 민물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용이 될 수 없었다.</p> <p>“나도 용이 되고 싶어.”</p> <p>이를 안타깝게 본 심사관이 용궁의 관리자로 일을 시켰다.</p> <p>(이하 생략)</p>	<p>몬 이무기덜이 용이 뉘젠 이녁 능력을 뽐냈주마는, 혼 이무긴 민물 출신이라부난 영원히 용이 쉐 수 엇엇저.</p> <p>“나도 용이 뉘고정 허다.”</p> <p>이를 안타깝게 본 심사관이 용궁 관리자로 일을 시켰저.</p> <p>(이하 생략)</p>

62

문 ‘섞기, 더하기, 합치기, 즐기기, 놀기’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이○○, 20대, 여, 도외)

답 ‘서끌락, 더헐락, 합칠락, 즐길락, 놀락’이라고 합니다.

63

문 ‘뉘하지?’와, ‘친구, 친한 사람, 동료’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이○○, 20대, 여, 도외)

답 ‘무엇을 할까?’라는 의미라면 ‘무신거 허카?’라고 하면 됩니다. ‘친구, 친한 사람, 동료’를 뜻하는 제주어는 따로 없고 표준어처럼 ‘친구’나 ‘벗’이라고 합니다.

64

문 ‘완벽 그 자체’, ‘노래만 연습하면 완벽해’, ‘제주어 공부 필요

해’, ‘포기하지 마’를 제주어로 부탁드립니다.(이○○, 20대, 여, 도외)

답 ‘완벽 그 자체’는 표준어 형태와 동일합니다. ‘놀래만 연습허민 완벽허크라’, ‘제주어 공부가 필요허여/필요헌 거 님은게’, ‘포기 하지 말라’라고 하면 됩니다.

65

문 노래 가사인데요 ‘시계 초 소리만 더 커져’, ‘자꾸 듣고 싶어, 네 목소리가 좋아’, ‘쉴 틈 없이 설레게 하면’을 제주어로 부탁드립니다.(이○○, 20대, 여, 도외)

답 ‘시계 초침 소리만 더 커점져’, ‘자꾸 듣고정 해, 느 목소리가 좋다’, ‘쉴 저르 엇이 설레게 허민’이라고 하면 됩니다.

66

문 제주어를 활용하여 앱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노래 부르고 나면 점수에 따라 멘트를 써주고 싶은데 다음의 말을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이○○, 20대, 여, 도외)

답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주어를 찾기는 힘듭니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만한 단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해 드립니다.(▶ 표시는 의미를 확인하시고 사용 여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어	제주어
초심자, 초보	서툰바치
인기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 호스와치: 몸 치장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하는 사람

표준어	제주어
노래(풍류)를 즐기는 사람	풍류와치
퀴즈(학문, 공부)를 즐기는 사람	▶ 여산쟁이: 계산, 셈, 계획을 세우는 일에 밝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 -와치, -바치, -쟁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 마스터	▶ 노래와치(노래꾼), 난사름 (잘난 사람)

제주어를 표준어로

1

문 제주어로 ‘머정 좋다’, ‘머의 좋다’를 표준어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50대, 여, 제주)

답 ‘머정’은 ‘머의, 머생이’라고도 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운수’라는 의미로 표준어는 ‘재수’입니다. 따라서 ‘머정 좋다, 머의 좋다’는 표준어로 ‘재수 좋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문 제주어 ‘읍센 헛엇수다.’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오시라고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3

문 ‘폭삭 속앗수다.’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무척 애쓰셨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문 ‘그게 장점이주마씨.’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 30대, 여,

도외(서울)

답 ‘그게 장점이지요.’라고 합니다.

5

문 한기팔님의 ‘브름 고망 너울 고망’을 표준어로 바꿔 주세요.(박

○○, 연령 미상, 여, 도외)

답

제주어	표준어
제주 섬은 처음부터 브름뿐이라수다 너울뿐이라 수다	제주 섬은 처음부터 바람뿐이었습니다. 너울뿐이었 습니다.
브름 고망 너울 고망	바람 구멍 너울 구멍
제주 사람 가슴처럼 고망 버롱버롱흔 섬	제주 사람 가슴처럼 구멍 승승한 섬
제주 섬이 어디 그냥 섬이우파	제주 섬이 어디 그냥 섬입니까
제주 바당이 어디 그냥 바당이 우파	제주 바다가 어디 그냥 바다입 니까
브름 메경 그늘루곡 너울 메경 그늘루곡	바람 먹여서 그느르고 너울 먹 여서 그느르고
처음부터 제주 섬은 브름 고망 이 숨고망이라수다	처음부터 제주 섬은 바람 구멍 이 숨구멍이었습니다.
너울 고망이 목숨 고망이라수다	너울 구멍이 목숨 구멍이었습 니다.

※ 그느르다: 돌보고 보살피주다

6

문 ‘집구석에 박아정 뭐험신고이?’라는 제주어 문장에서 ‘뭐험신고이?’는 표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이○○, 70대, 남, 도외)

답 ‘뭐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제주어 ‘-암시-’는 표준어 ‘-고 있-’에 대응합니다.

7

문 ‘식혜때 뻬저.’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나요?(한○○, 20대, 여, 도외)

답 정확한 표기는 ‘식계 때 뻬저.’입니다. ‘식계’는 ‘제사’를 뜻하는 제주어이고, ‘뻬저’는 ‘뻬어’의 제주어입니다. ‘제사 때가 뻬어.’라는 문장입니다.

8

문 KBS라디오에서 ‘삼촌들 조꼳디 느랑 이시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5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삼촌들 곁에 늘 있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삼촌: 웃어른을 친밀하게 이르는 말.

조꼳디: 곁에.

느랑: 늘.

이시쿠다: 있겠습니다.

9

문 제민일보 기사에 ‘들러퀴멍 난리국 뉘쓰던 중혹교 졸업식날’이

라는 제목이 있는데, ‘웨쓰다’가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10대, 남, 제주(이주민))

답 ‘웨쓰다’는 표준어로 ‘뒤집다’입니다. ‘들러퀴멍 난리국 웨쓰던 중학교 졸업식날’은 ‘날뛰며 난리국 뒤집던 중학교 졸업식날’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문 ‘오메기술은 차조, 메조 녀 되가 한 말이거든.’이라는 문장을 해석해주세요.(한○○, 20대, 여, 도외)

답 “‘오메기술’은 차조, 메조, 녀 돼가 한 말이거든.”은 ‘오메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녀 되가 한 말’이라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말’은 육지부의 한 말과 다릅니다. 제주에서는 되로 네 개가 한 말인데, 육지부에선 열 되를 한 말로 합니다.

11

문 ‘일주일이면 괴고 두벌 해놔야 해.’라는 문장을 해석해주세요.(한○○, 20대, 여, 도외)

답 ‘괴고’는 ‘괴다’라는 표준어입니다. 술, 간장, 식초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주어로 쓸 때는 ‘궤고’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이면 괴고(발효가 되고), 두벌(두 번째로) 해놔야 해.’라는 뜻입니다.

12

문 ‘평안하우파?’가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인가요?(김○○, 20대, 여, 도외)

답 ‘편안하십니까?’로 ‘안녕하세요’처럼 인사말로 쓸 수 있습니다. ‘편안하우파?’ 혹은 ‘평안하우파?’로 사용되며 잘 있는지 묻는 인사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의미상 비슷하며 제주어로는 ‘편안’, ‘평안’이라고 발음합니다. ‘하다’를 제주어에서는 ‘허다’, ‘헛다’로 발음합니다.

13

문 제주민요 ‘서우제소리’의 가사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박○○, 연령 미상, 남, 도외)

답

제주어	표준어
여 쫓딜로	여의 끝으로 ※ 여: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
어디 쫓디로	어디 끝으로
문동물을 갖히면서	아주 큰 파도를 짓히면서/헤치면서 ※ 문동물: 문동절.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물결
혼 마를랑	한 마루는 ※ 마루: 물결의 꼭대기
마음 실피	마음 실컷, 마음껏
소신동아	‘작은 아이야’의 뜻일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며, ‘효자동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나루 철구대	제주도에는 강이 없어 강나루는 없습니다. ‘철구대’의 정확한 의미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제주어	표준어
올로 요기	요기로 요기(여기에서 여기까지)
어이나 드리 방애로구나	후렴구이므로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14

문 제주어에 ‘줏줏이 굴아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양
○○, 50대, 여, 제주)

답 ‘자세히 말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15

문 한림화 소설 《The Islander》에 ‘듬북 눌러 놓은 놀’이라는 문구
가 나오는데, ‘마미조를 쌓아놓은 가리’라고 대역했는데 맞나
요?(○○○, 40대, 남, 제주)

답 ‘마미조(馬尾藻)’는 한자어로, 모자반을 뜻합니다. 모자반에도 팽
생이모자반, 구슬모자반, 큰잎모자반 등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
다. 이 가운데 식용하는 모자반을 ‘츄뎨’이라고 하고, 듨북 등 다
른 모자반은 거름용으로 씁니다. 거름용 모자반은 ‘놀’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 ‘놀’을 ‘듬북놀’이라고 합니다.

16

문 제주어 ‘꼳뭇침’이 무슨 뜻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꼳마침’이라는 말로 ‘일을 끝내어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17

문 ‘맛잇수다게’가 무슨 뜻인가요?(○○○, 20대, 여, 도외)

답 ‘맛잇수다게’는 ‘맛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종결어미 다음에 보조사 ‘게’ 덧붙여 있어서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8

문 ‘취멍’은 ‘취다’인가요?(○○○, 30대, 남, 도외)

답 ‘-멍’은 ‘-면서’입니다. 따라서 ‘취멍’은 ‘취면서’입니다.

19

문 ‘요레 왕 건불령 갑서’의 ‘건불령’이 무슨 뜻인가요?(장○○, 40대, 남, 제주)

답 ‘건불리다’는 ‘시원한 바람을 맞아 더위를 식히다’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리 와서 땀 식히고 가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뽕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

3. 뜻풀이



1

문 '듬삭하다'가 무슨 뜻인가요?(김○○, 30대, 여, 도외)

답 '듬삭하다'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서 입안이 기름지게 느껴지다'는 뜻입니다.

2

문 제주어 '빗주제'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빗주제'의 '주제'는 '비나 눈, 바람 따위가 한바탕 내리거나 불'의 뜻을 지닌 어휘입니다. 그러니 '빗주제'는 '비가 한바탕 뿌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 한 주제, 바람 한 주제

3

문 '아깍다'는 무슨 뜻인가요?(○○○, 20대, 여, 제주)

답 '아깍다'는 예쁘고 곱다는 뜻입니다. 표준어 '아깝다'(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 섭섭하거나 서운한 느낌이 있다)와 비슷한 발음 때문에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문 음식 중에 '직장'이라는 제주어가 있나요? 표준어로 무엇인가요?(○○○, 20대, 여, 제주)

답 '직장'이 아니라 '집장'인 것 같습니다. '집장'은 '고춧잎이나 깻잎 순 따위에 메밀가루를 섞어 익힌 음식'을 말합니다.

5

문 ‘출레’가 반찬인가요?(○○○, 20대, 여, 제주)

답 ‘출레’를 반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젓갈이나 장아찌류의 반찬에 한정합니다. 이 ‘출레’는 ‘짜다’의 제주어 ‘츄다’에서 온 어휘이기 때문에 ‘짠 것’ 정도의 뜻을 지니게 됩니다. ‘반찬’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반찬이 출레, 출레가 반찬”이라는 말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6

문 ‘덩드렁마께’가 무슨 뜻인가요?(○○○, 30대, 남, 제주)

답 ‘덩드렁’이라는 딱딱하고 둥글넓적한 돌판 위에 짬이나 대 따위를 올려놓고 두드리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말합니다.

7

문 ‘약삭다’는 무슨 뜻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피가 있어 약삭빠르다’는 뜻입니다.

8

문 ‘데다’는 무슨 뜻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어휘만으로 그 의미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다음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 ① 몹시 놀라거나 심한 피로움을 겪어 진저리가 나다. 대응 표준어 ‘데다’

② 어떤 일이 생기는 수가 좀처럼 없다.

9

문 '옴다'는 무슨 뜻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옴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어휘입니다.

- ① 여물다. 곡식알이 올라고 단단해지다
- ② 언행이 옹골차고 야무지다

10

문 '술'은 무슨 뜻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술'이 아래아 '술'이라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 ① 살가죽의 겉면
- ② 사람이나 동물의 뼈를 싸서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분
- ③ 살. 나이를 세는 단위

11

문 '옥옥하다'는 무슨 뜻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사람이 약고, 미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12

문 제주어 '자젠'의 의미는 뭔가요? '참선수행'의 명칭으로 쓰이고자 하는데 괜찮은지요? '잘 자젠'은 어떨까요?(○○○, 70대, 남, 제주)

답 '자젠'은 '자려고'의 뜻으로 물을 때와 답할 때 다 사용이 가능함

니다. 여기에 ‘잘’을 붙이면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13

문 ‘움칠락하다’가 무슨 뜻인가요?(김○○, 50대, 남, 제주)

답 단어로만 봤을 때 표준어 ‘움칫하다’ 또는 ‘흠칫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 같습니다. 갑자기 놀라거나 겁이 나서 몸을 움츠리다는 뜻입니다.

14

문 ‘꼬난 돈’ 벌려고 나갔냐고 할 때 ‘꼬난 돈’은 무엇인가요?(○○○, 20대, 여, 제주)

답 ‘꼬난 돈’은 ‘꼴난 돈’인 것 같습니다. 이때 ‘꼴난’은 ‘보잘 것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15

문 ‘털닥시 같이 하지 말라게’ 할 때 ‘털닥시’가 무슨 뜻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털닥시’는 ‘철딱사니’로 보입니다. 표준어 ‘철딱서니’는 ‘철데가리’, ‘철데강이’로도 나타납니다.

16

문 ‘등겁다’는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등겁다’는 ‘고기를 끓인 국물의 기름기 따위가 입안에서 맛이

돌아 아주 구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17

문 '베지근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베지근하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이 맛이 돌아 구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기가 적당히 많아 음식에서 감칠맛이 날 때 쓰입니다.

18

문 할머니가 '어진아'라고 부르시는데, '어진이'가 무슨 뜻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아기가 어질게 자라라.'는 뜻으로 어릴 때 아기들한테 많이 불리는 별명을 말합니다.

19

문 제주어 '빈지룽'은 무슨 뜻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① 흔하게 널려있는 모습, ② 뻘히, ③ 번듯 등의 뜻이 있습니다.

20

문 제주어 '직산하다'는 무슨 뜻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앉거나 섰을 적에 위몸을 기대다'는 뜻입니다.

21

문 ‘곶’은 ‘돌무더기’라는 뜻이 맞나요?(한○○, 70대, 남, 제주)

답 ‘곶’ 혹은 ‘고지’는 ‘숲’입니다.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어는 ‘머들’입니다.

22

문 ‘자왈’은 무슨 뜻인가요?(한○○, 70대, 남, 제주)

답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어수선하게 자라는 덩불을 말합니다.

23

문 ‘들이챙’은 무슨 뜻인가요?(한○○, 20대, 여, 도외)

답 ‘들이치다’는 ‘들이뜨리다(안쪽으로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다)’의 제주어이고, ‘들이치다(① 손이나 발로 마구 치다. / ② 비나 눈 따위가 안쪽으로 뿌리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들이뜨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들이치+엉’의 구조로 ‘들이뜨려서’라는 뜻이 됩니다.

24

문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어른들에게는 바닷고기인 해어 찢어서 고기적이랑 같이 줬어요.”라는 문장에서 ‘해어’가 뭔가요?(한○○, 20대, 여, 도외)

답 ‘해어(海魚)’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뜻하는 것으로 표준어입니다.

25

문 ‘둥게둥게’가 무슨 뜻인가요?(홍○○, 20대, 여, 도외)

답 ‘둥게둥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① 둥게둥게: 아기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② 둥둥: 마음이 자꾸 들뜨는 모양. 또는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모양.

26

문 ‘들랑들랑 제주’라는 문구에서 ‘들랑들랑’이 마음이 두근거린다는 뜻이 맞나요?(홍○○, 20대, 여, 도외)

답 ‘들랑들랑’은 표준어 ‘달랑달랑’에 해당됩니다. ‘두근두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가슴이 뛰는 모양을 ‘달랑달랑’이라고 쓴다면 비슷한 의미이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27

문 ‘도올미롱’이 무슨 뜻인가요?(○○○, 50대, 남, 도외)

답 ‘도올미롱’은 ‘들미롱’을 길게 늘어 표현한 것으로 상품명으로 사용됩니다. ‘달콤하다’에 해당합니다.

※ ‘달다’ 계열의 어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달다: 둘다

달착지근하다: 들착지근하다

달콤하다: 돌콤하다, 들콤하다, 돌코롬하다, 들크롬하다

28

문 ‘당일바리’가 무슨 뜻인가요? 일본어인가요? (○○○, 50대, 여, 제주)

답 ‘당일바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하루 동안 낚시하는 일. 바다에서 그날 잡아올린 물고기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9

문 제주어종합상담실 자료집과 제주어사전에 ‘실프다’가 ‘싫다’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어와 약간 다르게 ‘귀찮다’는 의미가 있는 듯한데 아닌가요?(변○○, 40대, 남, 제주)

답 ‘실프다’는 ‘싫다’의 제주어입니다. 표준어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의미로만 쓰이는 반면 제주어에서는 표준어의 의미 외에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귀찮다’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30

문 제주어 ‘을큰ㅎ다’는 무슨 뜻인가요?(○○○, 20대, 여, 도외)

답 ‘을큰ㅎ다’는 ‘마음에 충격이 너무 커서 서운함이나 억울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입니다.

31

문 “그걸 먹구정허영 조지레기 앓앙”이라고 했는데 ‘조지레기’는 무슨 뜻인가요?(○○○, 40대, 남, 제주)

답 ‘조지레기’는 문맥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군침을 흘리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32

문 초가지붕에 올리는 것도 ‘새’고, 식물이 자라는 상태도 ‘새’라고 하나요?(○○○, 40대, 남, 제주)

답 벗과의 여러해살이풀인 띠를 제주에서는 ‘새’라고 하는데 땅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나 초가지붕을 덮을 때 둘 다 제주에서는 ‘새’라고 합니다.

33

문 제주어 ‘속숨허라’, ‘속쌌허라’, ‘죤죤허라’의 뜻이 다 같나요?(김○○, 50대, 여, 제주)

답 ‘속숨허다’, ‘속쌌허다’, ‘속심허다’, ‘죤죤허다’ 등은 표준어 ‘잠잠(潛潛)하다’에 해당하는 어휘들입니다. ‘속숨’과 ‘죤죤’은 뜻은 같지만 어휘 기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34

문 ‘머들’과 ‘백케’의 차이점이 뭔가요?(김○○, 60대, 남, 제주)

답 ‘머들’은 돌들을 쌓아놓은 무더기이고 ‘백케’는 돌들을 모아 담처럼 쌓아놓은 벽을 뜻합니다.

35

문 ‘꽃’의 의미에 ‘돌무더기’라는 뜻이 있는지 조사되면 알려주세요. (한OO, 70대, 남, 제주)

답 ‘꽃’은 ‘숲’의 의미로 사용되며 ‘돌무더기’는 제주에서 ‘머들’이라고 합니다. ‘꽃’이 ‘돌무더기’로 사용된 경우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확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36

문 ‘아시’가 동생을 뜻하는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친근감을 표시하는 뜻으로도 쓸 수 있나요?(OOO, 20대, 여, 제주)

답 ‘아시’는 ‘아우’를 말합니다. ‘아우’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간이 아니더라도 친근한 사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친근감’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

문 ‘빨라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외돌개 사진 설명을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특별하게 혼자만 솟은 모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OOO, 40대, 여, 제주)

답 ‘빨라지다’, ‘빨라지다’는 표준어 ‘바라지다’의 의미로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야무지다’는 뜻입니다. 주로 사람의 모양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외돌개를 설명하는 단어로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학적 표현으로 외돌개를 의인화

해서 다른 돌들은 낮게 깔려 있는데 혼자만 우뚝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주로 처리해서 본래의 뜻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38

문 ‘기술’이 무슨 뜻인가요?(김○○, 50대, 남, 제주)

답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어휘만으로는 뜻을 알기 힘듭니다.

39

문 ‘새미떡’과 ‘송편’은 어떻게 다른가요?(○○○, 50대, 남, 도외)

답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새미떡’은 반달 모양과 비슷하고, ‘송편’은 둥그스름합니다. 제주에서는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미떡’은 반달 모양 송편보다 크기가 큼니다.

4. 표기



1

문 ‘맛있다’의 제주어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20대, 여, 도외)

답 ‘맛싯다’, ‘맛읏다’, ‘맛중다’입니다.

2

문 ‘소망이럿저’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 50대, 여, 제주)

답 ‘스망일엇저’처럼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스망’은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또는 ‘좋은 일이 생길 운수’라는 뜻을 지닌 어휘입니다.

※ 19세기 초 《물보》에 한자어 ‘市利(시리-장사에서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어휘로 ‘스망’이라 하고 있습니다.

3

문 ‘족다’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대, 여, 제주)

답 ‘작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족다’, ‘죽다’로 표기하면 됩니다.

4

문 ‘짓으난/‘지스난’ 중 어떤 게 맞는 표기법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짓으난’이 맞는 표기입니다. 제주어 ‘짓다’는 표준어와 달리 ‘ㅅ’ 불규칙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받침의 ‘ㅅ’이 탈락하지 않습니다.

5

문 ‘마쌌’/‘마심’ 중 어떤 게 맞는 표기법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마쌌’, ‘마씨’, ‘마쌌’ 등으로 씁니다.

6

문 ‘남’을 말하는 제주어 ‘눔’/‘눔’ 중 어떤 게 맞는 표기법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둘 다 사용 가능한 표기입니다. ‘남[他事]’의 제주어는 ‘남’, ‘눔’, ‘눔’으로 나타납니다. 발음할 때 ‘눔’보다는 ‘눔’이 많이 나타나서 ‘눔’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7

문 ‘갯’을 ‘갯늻물’이라 하나요? ‘갯’/‘갯’ 중 뭐가 맞는 표기인가요?
(김○○, 30대, 여, 도외)

답 ‘갯’은 ‘갯늻물’이라고 합니다. ‘개’는 바다를 뜻하는 말이므로 ‘갯’으로 쓰는 것을 권합니다.

8

문 제주어 표기에서 헛갈리는 점이 있는데 ‘곱닥훈’과 ‘굽닥훈’ 중에 무엇이 올바른 표기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곱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곱닥훈’으로 써야 합니다.

9

문 제주어 표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현○○, 60대, 남, 제주)

답

수정 전	수정 후
츄자쨩 고맙수다	쫘아쨩 고맙수다
ㄱ르명 들으명 수눌영 살암시난	골으명 들으명 수눌영 살암시난
지꺼진 용담2동으로 멩글어 보게마썰!	지꺼진 용담2동으로 멩글어 보게마썰!

10

문 ○○리 소식지 제호를 ‘골아주난 알앗수다’로 하려는데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60대, 남, 제주)

답 ‘골아주난 알앗수다’처럼 쓰면 됩니다.

11

문 ‘멀미하다’의 제주어가 ‘수질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표기가 어떻게 되나요?(○○○, 40대, 여, 제주)

답 ‘수질허다’, ‘수질ㅎ다’로 쓰면 됩니다. 표준어 ‘멀미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멀미나다’, ‘멀미ㅎ다’, ‘수질ㅎ다’ 등으로 나타납니다.

※ 표준어 ‘멀미하다’는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흔들림을 받아 메스껍고 어지러워 지다.’ 하는 뜻입니다. 또 표준어 ‘수질(水疾)’은 ‘배를 탔을 때 어지럽고 메스꺼워 구역질이 나는 일. 또는 그런 증세’입니다. 제주어에서는 ‘수질’이 ‘배’에 한정되

지 않고 ‘차, 비행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질^ㅎ다’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12

문 <나무위키>에서 ‘서쪽’을 뜻하는 제주어 단어가 ‘서지섯’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서쪽’의 뜻으로 ‘서지섯’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서풍’은 ‘섯갈’ 또는 ‘섯갈브름’이라 하는데, 이때 ‘섯갈’의 ‘섯’과 ‘서지섯’의 ‘섯’이 관련이 있는지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3

문 제주어에서 ‘니’ 발음을 표기하는데 ‘네’로도 쓰고 ‘니’로도 쓰인 것을 보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니, 내, 네’가 모두 ‘네’로 소리 나므로 ‘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어표기법(2014,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에서는 한자어에서는 ‘니’로 쓰고 고유어에서는 ‘네’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14

문 숫자 ‘섯’, ‘넛’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 30대, 여, 제주)

답 ‘섯’은 ‘섯’/‘섯’, ‘넛’은 ‘넛’/‘넛’으로 표기합니다.

15

문 ‘떡으맨/맨’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 30대, 여, 제주)

답 ‘떡으멘’으로 표기합니다.

16

문 ‘갑서’/‘갑써’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〇〇, 30대, 여, 제주)

답 ‘갑서’로 표기합니다. 받침 ‘ㄱ, ㅂ’ 다음의 ‘ㄱ, ㄷ, ㅂ, ㅅ’ 등은 된소리(경음)로 발음되는 원칙에 따라 [갑써]로 발음되지만 표기할 때는 ‘갑서’라고 적습니다.

17

문 ‘고르민’/‘고라줍써’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〇〇, 30대, 여, 제주)

답 ‘말하다’의 제주어는 ‘곶다’이므로 ‘곶으민’, ‘곶아줍서’로 씁니다.

18

문 ‘뺏사불켜’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〇〇, 30대, 여, 제주)

답 ‘뺏다’가 기본형이므로 ‘뺏아불켜’로 표기합니다.

19

문 ‘무싱 거 헐꺼?’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〇〇, 30대, 여, 제주)

답 ‘무싱거 헐 거?’라고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무싱거’는 표준어 ‘무엇’에 대응하기 때문에 붙여서 써야 합니다. ‘헐 거’는 [헐 꺼]로 발음되기는 하지만 표기할 때는 ‘거’로 씁니다.

※ ‘무엇’은 ‘므스+것>므스것>므섯>므엇>무엇’으로 변화한 어휘입니다. 또 관형형 어미 ‘-르’ 다음에 ‘ㄱ, ㅅ’ 등은 된소리(경음)로 발음되는 원칙에 따라서 ‘헐 거’는

[헐 꺼]로 발음되기는 하지만 표기할 때는 예사소리 '거'로 씁니다.

20

문 '눔삐'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〇〇, 30대, 여, 제주)

답 '눔삐'로 표기합니다.

21

문 '얼마나 알암수과' 할 때, '파'인가요, '과'인가요?(〇〇〇, 30대, 여, 제주)

답 '알암수과', '알암수과' 어느 쪽을 써도 좋습니다. [아람수과]로 발음하면, '알암수과'가 되고, [아람쑤과]로 발음하면, '알암쑤과'가 되고, [아람쑤과]로 발음하면 '알암쑤과'가 됩니다.

22

문 '찾아와줍서'의 표기를 알려주세요.(이〇〇, 30대, 여, 제주)

답 '찾아와 줍서'라고 표기합니다.

23

문 '흔저 읍서예'의 표기를 알려주세요.(이〇〇, 30대, 여, 제주)

답 '흔저 읍서예'라고 표기합니다.

24

문 '맷돌'을 나타내는 제주어 '고래'의 표기는 '고래', 'ᄃ래', 'ᄃ래'

중 어느 것이 맞나요?(강○○, 40대, 여, 제주)

답 ‘ㄹ레’로 쓰는 게 좋습니다.

※ ㄹ레는 ‘꺠다(갈다)’에서 온 말입니다. ‘꺠--+에(집미사)ㄹ레’로 형성된 어휘입니다. 둘째음절 이하에서 ‘에’와 ‘애’는 구분이 어려우므로 어원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로 적습니다.

25

문 ‘맨도롱’/‘멘도롱’의 표기를 알려주세요.(○○○, 30대, 남, 도외)

답 ‘맨도롱’은 표준어 ‘매지근하다’의 ‘매지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맨도롱’을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26

문 ‘대게 많네요’, ‘대게 비싸네요’ 할 때 ‘대게’는 제주어인가요? 제주어라면 표기법이 맞는지, 아니라면 제주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주세요.(김○○, 50대, 여, 제주)

답 ‘대게’가 아니라 ‘되게’인 것 같습니다. 표준어 ‘되게’는 제주에서 [대게, 똬게] 처럼 발음됩니다.

27

문 ‘산도롱하다’의 표기를 알려주세요. ‘산도롱’이 ‘시원하다’라는 의미인가요?(○○○, 30대, 남, 도외)

답 ‘산도롱하다’는 달리 ‘산도록하다’라고도 하는데,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약간 차다는 뜻의 표준어 ‘싸느랴다’에 대응하는 어휘

입니다.

28

문 ‘심방’을 ‘신방’이라고도 표기(발음)하나요?(홍○○, 50대, 여, 제주)

답 ‘심방’을 연구자에 따라서 ‘신의 형방’의 줄인 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ㄴ’이 ‘ㅂ’ 앞에서 ‘ㄹ’으로 변화하였다고 봐서 ‘신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심방’은 ‘무당’이나 ‘무격(巫覡)’에 대응하는 말로 중세 국어에도 등장합니다. 《월인석보》(1459)나 《능엄경언해》(1461)에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오래된 어형으로 보입니다. 특히 《능엄경언해》에는 “쑤는 겨집 심방이오 祝는 남신 심방이라(무는 여자 심방이오 주는 남자 심방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어에서 ‘무당’은 ‘여자 심방’을 가리키며, ‘남자 심방’은 ‘박수’라고 합니다.

29

문 ‘곱딱하다’의 표기를 알려주세요. ‘곱딱하다’라고 쓰면 안 되나요?(홍○○, 50대, 여, 제주)

답 우리말에서 ‘ㅂ’받침 뒤의 ‘ㄱ, ㄷ, ㅂ’은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일반적인 음운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닥하다, 곱닥허다’라고 쓰고 [곱따ㄱ다/곱따ㄷ다]라고 읽습니다.

30

문 ‘무서워’의 제주어 ‘모소와’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 30대, 여, 제주)

답 ‘므스완’라고 씁니다. ‘무섭다’는 ‘무섭다’, ‘므습다’, ‘므섭다’, ‘므습다’로 나타납니다. ‘ㅁ’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무서완, 므스완, 므서완, 므스완’ 등으로 활용합니다.

31

문 ‘고맙수다’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 30대, 여, 제주)

답 ‘고맙수다’라고 씁니다.

32

문 ‘경 해’, ‘경 해’의 표기를 알려주세요.(문○○, 30대, 여, 제주)

답 발음에 따라 ‘경’, ‘경’, ‘경’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해’는 ‘허다’, ‘흐다’에서 온 것이므로 ‘헤’로 씁니다.

33

문 제주어 ‘이와기’랑 ‘이왓’ 중 어느 것이 맞는 표기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이야기’의 제주어는 ‘이야기’, ‘이예기’, ‘이와기’, ‘이왓’ 등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것을 써도 좋습니다.

34

문 제주어로 ‘~했다고’가 ‘헛덴’으로 알고 있었는데 집 주변에 사는 제주토박이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문맥상으로 유추한 것이지만 ‘왔다고’를 ‘왓제?’ ‘왓체?’라고 발음하던데 이

게 제주어가 맞나요? 맞는다면 이 말의 정확한 표기는 무엇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왓젠’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주어의 인용문은 종결어미의 자음에 ‘-엔’을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평서문의 경우 ‘-덴’, ‘-젠’의 형태가 됩니다.

※ ‘왓다, 왓어’+엔 → 왓덴(왔다고)

‘왓저’+엔 → 왓젠(왔다고)

35

문 달걀을 뜻하는 ‘독새기’의 올바른 표기법이 궁금합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닭’의 제주어는 ‘독’이므로 ‘독새기’를 쓸 때는 아래아 ‘독새기’로 써야 합니다.

36

문 제주어의 표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30대, 남, 도외(외국인))

답

수정 전	수정 후
뽕렌 고름시?	뽕렌 곶암시?
잘도 고맙수다양!	잘도 고맙수다양!
무싱거 마썰?	무신거마썰?
무사 경 지꺼전?	무사 경 지꺼전?
폭삭 속앗수다.	폭삭 속앗수다.
메시께라!	메시께라!

수정 전	수정 후
펜안허우파?	펜안허우파?
제라 맛조수다.	완전/잘도 맛좋수다. ※ '제라'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제라지게', '제라하게'는 '완전하게', '정확하게'의 뜻으로 쓰입니다.
맛 이서마썸!	맛서마썸!/ 맛잇어마썸!
그런 거 달마.	경헌 거 닻아.
머하맨?	무신거 허멘?/무신거 흐멘?
강방왕 곱썸.	강 방 왕 곱읍서.
양, 바당퀘기 줍서예.	양, 바당퀘기/바룻퀘기 줍서예.
잘 먹쿠다!	잘 먹쿠다!
밥 먹언?	밥 먹언?
뽀헨?	무신거헨?
나 아이들이영 놀안.	나 아으덜이영 놀안.
반갑수다.	반갑수다.

37

문 '안거리', '밖거리', '식계'의 표기를 알려주세요. (○○○, 30대, 여, 제주)

답 '안거리', '밖거리', '식계'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38

문 '골갱이'의 표기를 알고 싶어요. <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에는 '골갱이'로 나타나 있는데 맞나요? (○○○, 50대, 여, 제주)

답 김매는 도구인 호미를 제주에서 ‘글쟁이’라고 씁니다.

※ ‘글쟁이’는 고어 ‘굵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굵-’ 어간에 접미사 ‘-앵이’가 연결되어서 ‘글쟁이’가 된 어휘입니다. ‘갈퀴’를 ‘글쟁이’라 하는데, 고어 ‘굵다’의 어간 ‘굵-’에 접미사 ‘-앵이’가 연결된 ‘굵-+-앵이’가 ‘글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에’와 ‘애’의 표기는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원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39

문 제주어 ‘속앗수다’를 ‘속앗스다’라고 써도 되나요?(김○○, 20대, 여, 도외)

답 ‘속앗수다’라고 씁니다.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앗’은 ‘앗’으로 쓰고, ‘수’는 높임의 의미이며 ‘스’로 쓰지 않습니다.

40

문 ‘올레’, ‘올래’ 중 책자에서 일부러 ‘올래’라고 쓰고 싶다는 필자가 있는데 괜찮을까요?(김○○, 40대, 여, 제주)

답 제주어 사전에는 ‘올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어 사전에 ‘오래’가 나와 있고 고어 ‘오래’에서 온 말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래’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41

문 ‘묵은성’의 표기는 ‘무근성’, ‘묵은성’ 중 어느 것이 맞나요?(양○○, 50대, 남, 제주)

답 '무근성'인 경우 '묵다'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무근성'으로 익히 써왔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서 '무근성'으로 쓰는 게 좋을 듯합니다.

42

문 '태풍 완심에 조심합서/맹심합서'의 표기를 알려주세요.(현○○, 30대, 남, 제주)

답 '태풍 완시메 조심합서/맹심합서'라고 씁니다.

43

문 다음 제주어가 맞는 표기인지 확인해 주세요.(김○○, 30대, 여, 도외)

답

수정 전	수정 후
와리지 말앙, 촌촌이 고라 보게.	와리지 말앙, 촌촌이 곶아 보라.
글로 죽 가당 보문 큰큰헌 소낭 이 나옵니다게. 그딤서 늑단펜 으로 돌아성 들으멍갑서.	글로 쪽 가당 보문 큰큰헌 소낭 이 나옵니다게. 그딤서 늑단펜 디레 돌아상 들으멍 갑서.
알아수다. (지원) 온텐 헌 건 어 멩 뽕수과?	알아수다. (지원) 온텐 헌 건 어 멩 뽕수과?
뽕 드시쿠광?	무신겨 드시쿠광?
도새기레기도 있고, 모몰츠베 기도 있고.	도새기레기도 싯고, 모몰츠베 기도 싯고.
헝썰 뜨거운 거 먹으쿠광, 맨도 룡헌 거 먹으쿠광?	헝썰 뜻인 거 먹으쿠광, 맨도 룡헌 거 먹으쿠광?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이들 누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이덜 누 게고?

수정 전	수정 후
BTS마썸.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 들이주께.	BTS마썸.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 덜이우께.
아이고, 잘도 아깝다.	아이고, 잘도 아깝다.

44

문 ‘살암시민 살아지메’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표준어로는 어떻게
대역하나요?(전○○, 50대, 여, 제주)

답 ‘살암시민 살아지메’로 씁니다. 표준어로는 ‘살다보면 살게 된
다/살 수 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45

문 아래의 제주어가 맞는 표기인지 확인해 주세요.(홍○○, 20대, 여,
도외)

답

수정 전	수정 후
등계등계(등실등실)	등계등계
새별오름(새별오름)	세벨오름/새별오름
보기만 허고(보기만 하시고)	베리기만 허고
벨롱벨롱 바당(반짝반짝 바다)	벨롱벨롱 바당
산도룩한(선선한)	산도룩흔
아도룩한(아늑한)	아도룩흔
꺄슬(가을)	꺄슬
츄말로(정말로)	츄말로
만지지랑 맵서예.(만지지 마세요.)	문직지랑 맵서양.

46

문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구입니다. 아래의 제주어가 맞는 표기인지 확인해 주세요.(이○○, 연령 미상, 남, 제주)

답

수정 전	수정 후
혼저웁서예	혼저 읍서
안트레 들어 왕	안트레/안터레 들어왕
모다들엉 놀아보게마썸	모다들엉 놀아보게마썸
촌촌히 멩그러 보게	촌촌히 멩글아 보게/놀멍놀멍 멩글아 보게

47

문 ‘밥 줌양 먹으라’ 할 때 ‘줌양’은 어디에서 온 말인가요? 또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윤○○, 60대, 남, 제주)

답 ‘줌양’은 문맥으로 볼 때 ‘즘양’으로 보입니다. 이 ‘즘양’은 제주어 ‘즘다’에서 나온 말로 표준어 ‘말다’의 뜻입니다. 밥 따위를 국이나 물에 넣어서 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기는 ‘밥 줌양 먹으라’라고 쓰시면 됩니다.

48

문 ‘근에/그네’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10대, 남, 제주(이주민))

답 현재 ‘근에/그네’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문 차중락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노래를 제주어로 바꾸었는데
표기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 20대, 여, 도외)

답

수정 전	수정 후
언 보름이 서녕호게 양지를 것 지민 뜻뜻호던 니 두 불이 무사영 보고정 호고 퍼렁흔 썸 단풍으로 굽닥호게 물들면 그 썸우에 소량의 꿈 굽져두젠 호여신디	언 보름이 서녕호게 양지를 거 찌민 뜨뜨호던 느 두 불이 무사 영 보고정 호고 퍼렁흔 썸 단풍으로 굽닥호게 물들민 그 썸 우이 스량의 꿈 굽져 두젠 호여신디 (궤양 가냥호젠 헤신디)
아~ 그 연날이 무사영 보고정 호고 냥썸이 지민 꿈도 곳지 소라질 줄 무사 몰라 싱고 소랑호는 이 모음을 어평호고 어평호고 니영 나영 소량의 꿈 냥썸이영 가부러 신디.	아~ 그 옛날이 무사 영(너미도) 보고정 호고 냥썸이 지민 꿈도 궤썸 스라질(뜨랑가는) 중 무사 몰라싱고 스랑호는 이 모음을 어평호코 어평호코 느영 나영 스량의 꿈 냥썸이영(뜨랑) 가불어신디.

문 제주○○건물 별관 1층의 공간 3곳 명칭과 지하 1층 공간 1곳의 이름을 제주어로 지으려 합니다. 4개의 명칭을 확인해 주십시오.(이○○, 연령 미상, 남, 제주)

- 1) 모다들엉/모다정왓
- 2) 바끄레/밖거리
- 3) 안끄레/안거리
- 4) 머들코지

답 1) ‘모다들엉’이나 ‘모다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다정왓’은 조어법상 어색합니다.

2) 표준어 ‘바깥채’의 의미로 쓰시려면 ‘밖거리’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밖’은 고어의 ‘밖’에서 온 것입니다.

3) 표준어 ‘안채’라는 뜻의 제주어는 ‘안거리’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4) ‘머들코지’는 ‘머들’+‘코지’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머들’은 ‘돌무더기’라는 뜻의 제주어이고, ‘코지’는 ‘곶’의 제주어로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나온 땅을 말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공간의 목적과 맞는지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서귀포시청에서 제주어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주어 표기 자문 부탁드립니다.(이○○, 40대, 여, 제주)

답 ‘-’ 표기는 수정 사항 없는 경우입니다. 또 추가하면 좋을 제주

어 문장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① 무사?	② 뭐하멘?	③ 밥 먹언?
-	무시거 허멘?	-
⑦ 이땅 보게	⑧ 고치 가게	⑨ 좋수다!
-	그치 글라	(잘도) 좋수다!
⑬ 속암수다	⑭ 곱들락헌게	⑮ 호꼼만이십서
-	-	호꼼만 이십서
⑲ 땡저	⑳ 지꺼지다!	㉑ 경험써
땡저	-	경험서
㉕ 몸냥허라	㉖ 맛 좋은게	㉗ 와리지맙서
몸(므심)냥 허라	-	와리지 맙서
④ 기이?	⑤ 게매	⑥ 가게마씀
-	게매	-
⑩ 알앗수다!	⑪ 몰르쿠다	⑫ 고맙수다
알앗수다!	-	-
⑯ 어땡허코?	⑰ 힘냅써예	⑱ 어디팡?
-	심냅써예	어디우짜?
㉒ 어디감수광?	㉓ 춤읍써	㉔ 골읍써
어디 감수광?	춤읍서	골읍서
㉘ 펜안허우짜?	㉙ 윈디?	㉚ 소랑햐써
-	무시건디?	스랑햐써



5. 어원과 지명



1

문 ‘고라니’의 어원은 무엇입니까?(김○○, 50대, 여, 제주)

1) 송곳니를 나타낸다: 아장(牙獠)-뿔족한 이가 튀어나온 노루
를 닮은 동물

2) 몽골어 ‘고라’에서 온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온 게 아닐까 하는데 맞을까요?

답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고라니’는 《사성통해》(1517), 《훈몽자회》(1527)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오래 전부터 쓰는 어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라니’의 ‘고라’가 ‘고라물’(등마루를 따라 검은 털이 난 누런 뱀)에서 확인되는 ‘고라’(몽골어 qula)에서 온 것이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라니’는 몽골어로 ‘typar byra(토로그 보가. 큰 사슴의 뜻)’라고 합니다.

2

문 ‘지꺼지다’가 표준어로 ‘기껍다’로 되어 있던데 ‘지꺼지다’는 ‘즐겁다’의 원말인 것 같습니다. ‘기쁘다’는 마음과 관련된 말이고 ‘즐겁다’는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분해서 써야하지 않을까요?(이○○, 70대, 남, 도외(서울))

답 ‘지꺼지다’는 표준어 ‘기꺼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입니다. ‘기쁘다’와 ‘즐겁다’를 구분하여 하나는 몸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마음과 관련해서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꺼하다, 즐겁다, 기쁘다’의 뜻을 《표준국어대사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

니다.

기꺼하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여기다.

즐겁다: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기쁘다: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기꺼하다, 즐겁다, 기쁘다’ 모두 ‘마음’과 관련 있는 듯합니다.

3

문 ‘벙에돔’을 제주에서 ‘구루’, ‘구릅지’라 하나요? 어원은 어떻게 되나요?(김○○, 30대, 여, 도외)

답 ‘구럿’, ‘구룻’, ‘구룻지’, ‘구릿’, ‘귀릿’, ‘구루치’, ‘구리치’ 등으로 나타납니다.

※ 벙에돔을 일본어에서 ‘구레(구레)’라고 하며 감성돔을 ‘구릿’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본어에서 ‘クロダイ/くろだい(구로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

4

문 제주민요 ‘서우제소리’의 ‘서우’의 뜻과 어원을 알고 싶습니다.
(박○○, 연령 미상, 남, 도외)

답 현재 ‘서우’의 뜻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5

문 ‘귀인닥사니 벗어지니’는 어디서 온 말인가요? 표준어로는 뭐라고 하나요?(고○○, 50대, 남, 제주)

답 ‘귀인성 벗어지니’, 즉 ‘귀인성 없어지니’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탁사니 벗어지다’는 ‘귀인성스러운 데가 조금도 있지 아니하다’는 뜻의 제주어입니다. 달리 ‘귀인탁지 벗어지다, 귀인 벗어지다’라고도 합니다.

※ ‘권다사니’는 ‘귀인성’에 대응하는 어휘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될 타고난 바탕이나 성질이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6

문 ‘누웨믄루’를 표준어로 바꾸면 ‘믄루’를 ‘마루’라고 하나요? 무슨 뜻인가요? 가끔 ‘누웨믄루’라고 해놓고 ‘누웨모루’로 쓰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김○○, 40대, 남, 제주)

답 ‘믄루’를 표준어로 바꾸면 ‘마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웨믄루’라고 써야 합니다. ‘누웨믄루’는 누에고치가 꿈틀대는 모습과 비슷한 지형이라는 뜻으로 인제가 배출되고 부자가 난다는 명당자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7

문 제주 지명에 대해 살펴보다가 ‘소보로당’이라는 지명을 눈여겨 보게 되었는데, 어떤 뜻을 가진 지명인가요?(김○○, 연령 미상, 여, 제주)

답 ‘소보로당’이 아니라 ‘소보리당’인 것 같습니다. ‘소보리당’은 서귀포시 상예동의 지명인데 의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소보리당’은 서귀포시 상예동 3694번지 일대를 말합니다. 《서귀포시 지명 유래집》(1999:668면)에 따르면, “소의 뿔처럼 생겼다 하여 ‘소뿌리동산’으로 불려

지다가, 길 서북쪽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드렛당’이 있어 ‘소보리당’으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소보리’가 ‘쌀보리’의 옛말 ‘쌀보리’에 대응하는 제주어 ‘솔오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8

문 간판을 보다 보니 ‘케왓’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무슨 의미인가요?(성○○, 50대, 여, 제주)

답 ‘케왓’이라는 말은 조합원이나 마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운영되는 밭을 말합니다.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지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로 들판에 있는 밭의 지명으로 사용됩니다.

9

문 ‘막숙포구’가 무슨 뜻인가요?(○○○, 5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막숙포구’는 고려시대에 군 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곳으로, 지금의 법환 포구를 말합니다.

10

문 조사를 갔는데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사람들이 외갓집을 ‘굴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굴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굴집’이 무슨 뜻일까요?(조○○, 40대, 여, 제주)

답 ‘굴’은 ‘가마’를 뜻하기도 하고, ‘구렁’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마

를 운영하는 집 혹은 구렁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11

문 제주어 ‘할망’이 ‘어르신’이란 의미도 가지나요?(김○○, 60대, 여, 제주(이주민))

답 ‘할망’은 ‘할머니’의 제주어이며 ‘어르신’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설화 속에서 ‘설문대 할망’, ‘조왕 할망’ 등으로 쓰이기는 합니다.

12

문 ‘일췌당’이 무엇인가요?(홍○○, 50대, 여, 제주)

답 ‘일췌당’은 ‘이레(7일, 17일, 27일)날’에 가는 당이라는 뜻입니다. 표준어 ‘이레’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일췌’입니다. 반면에 ‘여드렛당’은 8일, 18일, 28일에 가서 붙은 당 이름입니다.

13

문 ‘뜨레’가 제주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건가요?(○○○, 40대, 여, 도외(전남))

답 ‘뜨레’가 사랑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뜨레’와 비슷한 발음으로는 ‘드레’가 있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으로’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드레’는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동드레, 서르레, 알르레, 안트레’ 등이 있습니다.

14

문 ‘섭지코지’의 ‘코지’처럼 바다쪽으로 나와있는 곳을 ‘곶’이라고 하던데, ‘곶자왈’의 ‘곶’과 관련이 있나요?(○○○, 40대, 남, 제주)

답 ‘섭지코지’의 ‘코지’는 표준어 ‘곶’과 같이 ‘바다 쪽으로 뻗어 나온 육지’를 말합니다. 표준어 ‘곶’과 숲을 뜻하는 제주어 ‘곶’은 형태는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곶자왈’의 ‘곶’은 ‘숲’을 의미합니다.

15

문 ‘눌할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60대, 여, 제주)

답 ‘눌할망’은 ‘뱃칠성’, ‘뒗할망’이라고도 하며 칠성신 중에서 집 뒤 쪽 텃밭 등에 제단을 만들고 모시는 신입니다. 주로 주저리를 덮어두고, 집안의 부와 장수를 기원합니다. 참고 자료로는 《제주 민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등을 추천합니다.

16

문 “‘황호바’라고 반코트를 삼동 팔아서 샀어.”라고 말했는데, ‘황호바’가 무엇인가요?(한○○, 20대, 여, 도외)

답 ‘황호바’는 ‘항오바’로 보입니다. ‘항’은 한자어 ‘半’을 일본식 발음 ‘항[하시]’으로 읽은 것이며, ‘오바’는 영어 ‘over’(추위나 눈비를 막기 위하여 덧입는 긴 겹옷)입니다. 결국 ‘항오바’는 ‘반코트’를 말합니다.

17

문 '마을 지명'과 관련된 책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30대, 여, 제주)

답 마을 이름 또는 지명에 대해서는 오창명의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1,2)나 행정기관에서 발간한 《제주시 옛 지명》, 《북제주군지명총람》(상, 하), 《서귀포시 지명 유래집》, 《남제주군 고유지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주도 주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8

문 '떡갈나무'의 '갈'은 무슨 뜻인가요?(홍○○, 50대, 남, 제주)

답 '갈나무'는 '떡갈나무', '신떡갈나무', '개떡갈나무' 등과 같은 나무를 이릅니다. '떡갈나무'는 '갈나무'(참나무과)의 한 종류입니다.

19

문 제주어 '사옥기낭'은 '벗나무'와 같은 건가요? 어디서 온 말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사옥', '사옥이'는 벗나무의 일종인 '사옥'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벗나무'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도감 등에는 '사옥'으로 올라 있어서 '사옥이' 또는 '사옥이낭'으로 표기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20

문 ‘소리낭’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요?(홍○○, 50대, 남, 제주)

답 ‘소리낭’은 ‘소리나무’를 말합니다. 식물도감에 따라서는 줄참나무나 물참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소리낭’의 ‘소리’는 이 나무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 듯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21

문 제주어를 구술하시는 할머니의 인터뷰 중에서 ‘탁빃집에 갔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탁빃집’이 뭔가요?(○○○, 30대, 여, 제주)

답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뜻을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탁비’는 ‘탑비(塔碑)’와 같은 말의 변음인 듯합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음성을 찬찬하게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계

6. 문법과 발음



1

문 ‘모든’을 뜻하는 관형사형이 제주어는 없나요? ‘믄’은 어떤가요?(○○○, 10대, 남, 제주(이주민))

답 ‘믄’은 부사형으로만 나타납니다. 관형사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든’과 비슷한 의미의 제주어 관형사형은 ‘하간’, ‘하근(온갖)’ 정도가 있습니다.

2

문 ‘가을’이 ‘ㄱ슬’, ‘ㄱ을’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ㅇ, ㅅ’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나요?(○○○, 30대, 여, 제주)

답 중세국어의 반치음(Δ)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을’의 고어는 ‘ㄱ숯’입니다. 이 ‘ㄱ숯’의 반치음(Δ)이 ‘Δ>ㅇ’으로 변화하면 ‘ㄱ을’이 되고, ‘Δ>ㅅ’으로 변화하면 ‘ㄱ슬’, ‘ㄱ실’이 됩니다.

3

문 실제 제주어가 표준어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주어는 왜 받침에서 ‘ㅅ’이 아니라 ‘ㅆ’을 쓰나요?(○○○, 20대, 여, 도외(외국인))

답 표준어와 제주어의 차이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마땅히 없어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책 《제주사난 제긋사름》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요디가 삼성철이구나양?> 중에서(제주어:표준어)

▶ -양: ‘-요’, 높임의 표현.

- ▶ 고망: 구멍
- ▶ -이엔: -이라고
- ▶ -붙었어: -버렸어
- ▶ -명: -면서
- ▶ 경: 그렇게 / 영: 이렇게 / 정: 저렇게

‘먹었어’를 예로 들면 발음이 [먹어써]가 아니라 [먹어서]처럼 나기 때문에 받침을 ‘쓰’이 아니라 ‘스’으로 씁니다.

4

문 아기들한테 자라고 할 때 ‘코허라’, ‘코자다’처럼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코’의 품사는 뭔가요?(오○○, 50대, 여, 제주)

답 ‘코’만을 떼어내서 품사로 잡기는 힘듭니다. ‘코+허다’, ‘코+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코’의 의미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는 ‘하다’, ‘자다’ 따위에만 연결되는 말로써, ‘코허다’, ‘코자다’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문 ‘빌레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까요?(현○○, 40대, 남, 제주)

답 ‘빌레’는 표준어 ‘너럭바위’를 말하므로 이런 돌이 있는 동산이라면 ‘빌레동산’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렘똥산], [빌레똥산]이라고 발음하면 ‘빌렛동산’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6

문 ‘쿰다’처럼 ‘교’이 ‘ㅋ’으로 변한 제주어가 또 있나요?(○○○, 10대, 남, 제주(이주빈))

답 ‘쿰(품쌔)’, ‘쿰일(삿일)’, ‘케다(꽤다, 이삭이나오다)’, ‘쿨(풀)’ 등이 있습니다.

7

문 한자음을 적을 때 ‘겨’, ‘혀’ 등의 ‘ㄱ’, ‘ㅎ’과 ‘ㅈ’, ‘ㄷ’ 등의 이중모음이 붙을 때 나는 소리는 ‘저’, ‘세’ 등으로 적어야 하나요, 그대로 ‘겨’, ‘혀’ 등으로 적어야 하나요?(박○○, 20대, 남, 제주)

답 제주어에서 ‘겨울’이 ‘저을’, ‘헛바닥’이 ‘셋바닥’처럼 나타나는 합니다만 이 단어들은 한자어가 아니고, 모든 단어에 적용되는 음운현상도 아닙니다. 한자음은 오히려 음운변동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兄)’의 한자음은 제주어에서는 ‘성’으로 말해지므로 ‘성’이라 씁니다.

8

문 ‘잘도’의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잘도’ 다음에 동사가 오는지 형용사가 오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잘’(부사) + ‘도’(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잘도 잔다’, ‘가기도 잘도 간다’처럼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 경우는 ‘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서는 ‘매우’의 의미로 사용되며 ‘도’를 생략할 수 없

습니다. ‘잘도 곱다’, ‘잘도 하다’, ‘잘도 빠르다’처럼 씁니다.

9

문 높임의 ‘시’가 제주어에서 사용되나요?(문○○, 60대, 여, 제주)

답 높임의 ‘시’는 전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듯하나, 최근 표준어의 영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문 문장 끝에 ‘-주게’라고 하는 건 표준어로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20대, 여, 도외(서울))

답 ‘-(이)지’를 말합니다. ‘-주게’의 ‘게’는 ‘강조, 확인, 촉구’ 등의 뜻을 지닌 보조사입니다. “떡도 먹었주.”와 “떡도 먹었주게.”를 비교해 보면 ‘게’가 들어간 문장이 떡 먹은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문 ‘씻나’, ‘근나’ 에서 ‘-나’가 뜻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박○○, 20대, 남, 제주)

답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제주어 종결어미 ‘-나’는 표준어 ‘-는다’, ‘-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원칙, 판단이나 추측을 단정적으로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12

문 아래아 발음이 ‘아으’로 소리 나는 게 맞나요?(○○○, 30대, 남, 도외
(외국인))

답 ‘아래아’는 후설저모음이며 단모음입니다. 혀를 ‘아’ 할 때처럼 아래로 내리고, ‘우’할 때처럼 뒤로 빼서 발음합니다. 또한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으로 ‘아으’처럼 두 개의 모음이 발음되지는 않습니다. 젊은 층은 발음이 어려워 주로 ‘오’로 발음합니다.

13

문 ‘토박이’를 ‘토백이’라고도 하나요?(이○○, 70대, 남, 도외(서울))

답 발화자에 따라 ‘토백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으로 앞의 모음이 바뀌는 것으로 제주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방언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14

문 ‘올레’는 ‘문’이라는 뜻의 ‘오래’에서 온 것 같은데, 왜 ‘올레’로 바뀐 건가요? 발음하는 과정에서의 변형으로 봐야 될까요?(오○○, 50대, 남, 제주)

답 ‘오래’를 ‘올래’ 또는 ‘올레’로 쓰는 것은 ‘ㄹ’ 첨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모래’를 ‘몰래’라 하고, ‘모르다’를 ‘몰르다’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 ‘징기’가 무엇인가요? ‘밥을 헤신디 징기가 잇엉’이라고 제주어 산문집에 나와 있어요. (OOO, 40대, 남, 제주)

답 ‘징기’는 ‘진기’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끈적끈적한 기운’의 ‘진기’를 발음할 때 뒤에 오는 ‘ㄱ’ 때문에 받침의 ‘ㄴ’이 ‘ㅇ’으로 소리 나는 것입니다.

물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계

7. 기타



1

문 바다 관련 어휘를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서 뽑아서 제주해양청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호], [전역]은 무슨 뜻인가요?(○○○, 30대, 남, 제주(이주민))

답 《제주어사전》에서 [] 안에 지역을 표기한 것은 조사 지점을 뜻합니다.

2

문 ‘봄’은 제주어와 표준어가 같은데 이것도 제주어인가요?(○○○, 30대, 여, 제주)

답 제주어는 ‘제주사람들이 쓰는 말’을 말합니다. ‘제주사람들만 쓰는 말’을 제주어라고 한다면 범위가 좁아지겠지만 ‘제주사람들이 쓰는 말’을 제주어라고 본다면 ‘봄’은 표준어이면서 제주어입니다. 제주어는 오래 전부터 제주사람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어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제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3

문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서 ‘떼역[명]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은 무엇인가요?(○○○, 30대, 남, 도외)

답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11쪽에 약호와 기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식>은 ‘식물’이라는 뜻으로 전문어 영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4

문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0대, 여, 도외(외국인))

답 정확한 수치로 말할 수 없으며, 몇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을 뿐입니다. 80대 후반의 토박이들이 제주어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문 실제 생활에서 제주어는 ‘몸국’처럼 단어만 남아있나요?(○○○, 20대, 여, 도외(외국인))

답 제주어가 ‘몸국’처럼 어휘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운(대 표적으로 아래아), 문법(동작상의 ‘어시/아시’, ‘엄시/암시’, 특이한 종결어미 등) 등에서도 표준어와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면 언어도 바뀝니다. 현대사회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농사나 전통 공예와 관련된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먼저 사라집니다.

6

문 제주어, 제주방언, 제주사투리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30대, 남, 도외)

답 ‘제주어’, ‘제주방언’, ‘제주지역어’, ‘제주말’ 모두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사투리’는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오직 제주도에 서만 쓰이는 어휘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고 교양없는 사람들

의 언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사투리’라는 단어는 가급적 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주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7

문 제주어 ‘놉’ 대신 ‘남적’이라는 단어를 쓰나요?(홍○○, 50대, 여, 제주)

답 ‘놉’은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이라는 뜻으로 표준어와 일치합니다. ‘남적’이라는 단어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8

문 버스정류장에 있는 제주어 시를 모아놓은 책자가 있나요?(강○○, 30대, 여, 제주)

답 책자가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시들은 제주어로 쓴 시 중에서 뽑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9

문 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문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읍서, 민속 오일시장으로!’라는 문장이 괜찮을까요? 이외에도 괜찮은 문장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0대, 남, 제주)

답 ‘갑시다’라는 의미로 ‘걸읍서’, ‘글읍서’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좋은 문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베라벨 거 다 싯수다(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 ▶ 뽕글랑ㅎ게 먹곡(배부르게 먹고)

- ▶ 왕 똥 삼서(와서 보고 사세요)
- ▶ 이레 왕 구경협서(여기 와서 구경하세요)
- ▶ ㄱ치 가게마쌌(같이 가요)

10

문 ‘아깍다’라는 제주어가 왜 《제주어사전》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없는 단어인가요?(박○○, 20대, 남, 제주)

답 모든 단어가 사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많은 단어를 실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깍다’는 표준어 ‘귀엽다’에 해당하는 어휘입니다.

11

문 바늘 한 접이 24개라고 하는데, 마늘은 한 접이 몇 개인가요?(○○○, 50대, 여, 제주)

답 ‘접’은 채소나 과일을 세는 단위명사로 마늘 한 접은 백 개를 말합니다. 이는 표준어 형태와 동일합니다. 그릇을 셀 때도 제주에서는 ‘접’을 쓰는데 10개를 뜻합니다. 바늘을 세는 단위는 제주에서 ‘쌈’, ‘쌌’이라고 해서 24개를 말합니다.

12

문 제주어, 제주방언, 제주사투리 등 여러 가지로 제주어를 부르고 있는데, 최근 ‘제주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김○○, 20대, 남, 도외)

답 ‘제주어’라는 명칭은 제주 지역에서 제주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로 지역민들의 정체성 찾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사용될 때는 ‘제주방언’, ‘제주지역어’라고 쓸 수 있습니다.

13

문 제주어 표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30대, 여, 제주)

답 《제주어사전》 또는 《제주어 표기법》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문 ‘멘도롱’과 같이 독특하고 좋은 뜻을 가진 제주어를 알고 싶어요. 어디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40대, 남, 도외)

답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제주어자료실의 ‘제주어사전’을 이용하시거나, (사)제주어연구소 누리집에서 ‘아름다운 제주어’,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 그 외에 제주어와 관련된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문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제주도 말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친구에게 제주어를 설명해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30대, 남, 도외)

답 제주어보전회, 제주어연구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에서는 전화, 전자우편,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16

문 제주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주일 단기 교육 같은 것도 있나요?(○○○, 20대, 여, 도외(외국인))

답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내의 공식적인 제주어 교육기관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을 받아서 단체나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매년 교육이 진행되므로 교육 기간이나 내용이 확정되어 공지된 것은 없습니다.

17

문 제주어를 번역해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50대, 남, 도외(경상))

답 제주어를 번역해주는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궁금하신 제주어를 <제주어종합상담실>에 물어보신다면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18

문 표준어를 제주어로 대역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50대, 남, 도외(경상))

답 각출판사에서 발간한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을 추천

합니다.

19

문 《제주사난 제죽사름》 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정○○, 50대, 남, 도외)

답 책자는 비매품으로 더이상 배부가 불가능하며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

문 제주어 기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정○○, 50대, 남, 도외)

답 제주어연구소, 제주어보전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제주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

문 제주어 시집은 어떤 것이 있나요?(장○○, 30대, 여, 제주)

답 김광협외의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 김종두의 《사는 게 뭣산디》, 고정국의 《지만 울던 장쿨래기》, 고훈식의 《어글락다글락》, 양전형의 《굴메》를 비롯한 많은 시집이 나와 있습니다.

22

문 요즘 10대들이 제주어에 얼마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 20대, 여, 도외)

답 10대는 제주어보다는 영어와 게임 K-POP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주어와 제주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면서 점차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제주어 공모전에서도 학생 부문 응모작이 97편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홍보 작업과 제주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10대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23

문 노래를 바탕으로 제주어를 학습하는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임○○, 20대, 여, 도외)

답 제주어를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10대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주에서도 제주어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양정원, 뚜렘브러더스, 사우스카니발, 제리진합창단 등)들도 있고, 초등학교 수업에서 제주어 노래를 활용한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어 창작 동요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찾아보기



ㄱ

가게미씀 117
 가근에 71
 가근엥에 71
 가운데 19
 가운데 19
 가운데 19
 가지깡이 31
 가차운 68
 각단 51
 간들간들 35
 간잘귀 44
 간절귀 44
 간절미 44
 강 71
 강 방 왕 줄읍서 110
 개지 31
 갯굿 47
 갯늬물 101
 거끄다 48
 거멍하다 39, 45
 거멍하다 39
 거짓갈 68
 건들건들 35
 건불리다 85
 걸다 46
 걸읍서 140
 경 108
 게더분하다 18
 게메 43, 117
 계와 22
 갱 108
 경 108, 131
 경헌덴 64

경험서 117
 경헌덴 64
 고동 17
 고라니 120
 고맙수다 108, 117
 고맙수다양 109
 고망 80, 130
 고장 34, 66
 고장질 28
 고팡 21
 곱닥허다 107
 곱닥하다 107
 곱닥훈 101
 곱들락헌게 117
 공싯간 41
 곶 93, 97, 125
 곶자왈 125
 구럿 121
 구루치 121
 구룻 121
 구룻지 121
 구리치 121
 구룻 121
 구물 68
 구살 17
 구제기 17
 구쟁기 17
 구쟁이 17
 군작 37
 굴멩이 44
 굴집 123
 굶굽하다 18
 굶금하다 18
 궤기국시 31
 궤기국쉬 31

궤다 72
 궤양 55
 궤양 가냥헌젠 115
 궤팡 21
 귀 17
 귀경 35
 귀룻 121
 권다사니 122
 권닥사니 벗어지다 122
 궤가시냥으름 16
 그느르다 80
 글읍서 140
 기라 43
 기십 54
 기영하다 45
 기우다 43
 기이 117
 기지 43
 마레 106
 마루 28
 마를 28
 마슬 32, 113, 130
 마실 32
 마을 32, 130
 마치 글라 117
 골깡이 111
 줄읍서 117
 굶세기 41
 굶수기 41
 궤다 23
 궤쪽궤뜨다 31
 궤쪽궤트다 31
 궤끗하다 17
 궤끗훈 73
 궤닥궤닥 49

끌리 67
꽃 34, 66
꽃질 28
꽃무침 84
깍장 67, 69

ㄴ

나마쌈 71
난리국 82
난사름 78
낭쌈 115
내움살 60
너이 30
넉동베기 48
넉둑베기 48
넉동베기 48
노고록하게 63
노네기(손가락) 34
노널웨기(손가락) 34
노니에기(손가락) 34
노니와기(손가락) 34
노랑하다 39, 46
노랑하다 39
노래와치 78
노프다 22
놀 68
놀락 76
놀멍놀멍 114
놀멍놀멍 읊서 58
놉 140
누리다 39
누웨마루 122
눈고장 66
눈꽃 74

놀 51, 84
놀할망 125
느끼리다 19
느량 81
느영 나영 115
늦 18
늦 103
닝끼리다 19
닐 68, 75
닛 30, 103
늑노다 23
늑누다 23
늑단펜 112
늑누다 23
놀씩하게 63
놉빠 105
늦서툰다 22
늦설다 22

ㄷ

다솨 30
다솨 30
다음에 읊서에 58
당일바리 95
대우리 52
대풍 68
더망세기 50
더혈락 76
덜럽다 18
덜롭다 18
덧나난 75
덩드렁 89
덩드렁마계 89
데가리 24, 50

데럽다 18
데망생이 50
데맹이 24, 50
도새기 26
도야지 26
독맹이 51
돌세기 51
돌생기 51
돌생이 51
돛 26
동 37
동구랑하다 46
둘리 67
동계동계 94, 113
뉘스다 82
뉘저 117
뉘할망 125
들러퀴다 54
들러퀴멍 82
들이치다 93
듬북쟁이 53
듬북놀 84
듬삭하다 88
등겁다 91
디다 89
디딜팡 52
독새기 51, 109
돈다 27, 71
돌다 25, 94
돌랑돌랑 94
둘리다 27
둘미롱 94
둘착지근하다 25, 94
둘코롬하다 25, 56, 94
둘콸하다 25, 94

돌크름하다 25, 94
돌큼하다 25, 94
똥똥현 무심으로 61
똥똥하게 64
똥똥흔 67
똥받이 47

㉠

마루 83
마미조 51, 84
마씀 101
마씨 101
마쌈 101
마은 30
막숙포구 123
만허다 46
맛셔미씀 110
맛시다 100
맛숫수다게 85
맛숫지 67
맛있다 100
맛잇어미씀 110
맛좋다 100
맛좋수다 110
맛좋지 67
맞수다게 43
맨도롱 106
맨도롱하다 51
머들 96, 97, 116
머리 23
머생이 79
머의 79
머의 좋다 79
머정 79

머정 좋다 79
메시께라 109
메역 138
메옹 43
맨도롱 142
모냥 49
모다들엉 114, 116
모다경 116
모몰초베기 112
몰래 134
몰레 63
몰르다 134
몰르쿠다 117
몽케시민 75
무근성 112
무사 115, 117
무시거 허멘 117
무시건디 117
무신거 104
무신거미씀 109
무신거헨 110
무신거 드시쿠광 112
무신거 허멘 110
무신거 허카 76
무신거 흐멘 110
무장 42
문동물 83
물괘기 16, 39
물자리 29
물썰 29
물토새기 44
물툫 44
물투름하다 37
민드럽다 19
민지럽다 19

민치럽다 19
무리 23
무섭다 26
무슬 23
무습 21
무습다 26
무실 23
무심 21, 39
무습다 26, 108
무을 23
무음 21
문 76, 130
문여 18
문에 18
문저 18
문직지랑 맵서양 113
문처 18
문침 18
물 26
물그랑 53
물마농고장 33
물망 51
뭍은 73
뭍 51
뭍국 139
뭍(무심)냥 허라 117

㉡

바꼬다 21
바당 16, 39
바당고기 16
바당괘기 16, 39, 110
바당 소곱 75
바르 16, 39

바릇 39
 바릇고기 16
 바릇괘기 16, 39, 110
 바쁘파 61
 바쁘시우파 61
 바쁘우파 61
 바치 78
 바투리 56
 반가와 62
 반가운게 62
 반갑수다 110
 반허다 39
 반허다 39
 발창 19
 밤부리 29
 밥주리 29
 밥주어리 29
 밥 먹언 117
 밧거리 110, 116
 밧칠성 125
 배달허는 사람 73
 백이다 71
 백허다 71
 버롱버롱 80
 벌경허다 39
 벌경허다 39
 벌싸 19
 베껏 28
 베곳 28
 베라벨 140
 베리다 20
 베염술 41
 베와주다 24
 베우다 24
 베지근허다 92

벅케 96
 벤줄 34
 벨나다 40
 벨라지다 97
 벨롱벨롱 113
 벨허다 40
 벵글 34
 보고정 허다 74
 보롬 42
 보호허다 73
 보호허다 73
 부글레기 50
 부글레기 50
 부절엇이 56
 부트다 45
 분주허다 40
 분쥐허다 40
 웨와주다 24
 웨우다 24
 빈지룽 92
 빌레 55, 131
 빗난 깎 68
 빗주제 88
 빙완 49
 브르다 47
 브름 42, 67
 브롬 42
 볼썸 19
 볼싸 19
 벨라지다 97
 뽕글랑허게 140
 뻗다 104



사옥 126
 사옥이 126
 사옥이냥 126
 삭삭허다 35
 산도록허다 106
 산도록헌 113
 산도롱허다 106
 산뒤삼촌 41
 산뒤스촌 41
 산뒤제완이 41
 산태 29
 산태비 29
 살암시민 살아지메 113
 삼촌 81
 상긱허다 52
 상손긱락 34
 상치 33
 새 51, 96
 새끼손긱락 34
 새미떡 98
 생끼손긱락 34
 서골락 76
 서녕허게 115
 서름질 36
 서우제소리 121
 서이 30
 서툰바치 77
 설름질 36
 섭 28
 섭지코지 125
 성 132
 셋바닥 132
 생게 41
 생선 16, 59, 67, 69

생성 59
생이여 64
소리낭 127
소보리당 122
소중헌 73
소중훈 73
속박 44
속숨하다 21, 96
속숨하다 21, 96
속심하다 21, 96
속암수다 117
속앗수다 111
손박 44
솔라니 59
솔레기 59
솔박 44
숨 17
숫 48
수람하다 46
수랑하다 46
수룸하다 46
수물 30
수웨기 41
수질하다 102
수질하다 102
솔람하다 46
승시 50
쉐 26
쉬멍 85
숫 103
시원하다 35
시원하다 35
식계 81, 110
실프다 95
실피 83

심내개 74
심내자 74
심냅서예 117
심다 24
심든 일 64
심바람하는 사람 73
심방 107
심심하다 32
심심하다 32
심읍서 69
심지다 24
숫 30, 103
숫다 52
심심하다 40
스랑 36
스랑험저 117
스랑한다 72
스망 100
스망일었저 100
솔 90
써능현 65
썰렁하다 33
썰렁하다 33
썸 28, 115
수물 30
쓸쓸하다 32
쓸쓸하다 32
씨다 27

○

아공 17
아금지(손가락) 34
아깍다 88, 113, 141
아도록훈 113

아시 97
아옴 30
아은 31
안거리 110, 116
안녕허우과 61
안주와기(손가락) 34
안주웨기(손가락) 34
안진방석 29
안터레 114
안트레 114
알루다 21
알리다 21
알암수과 105
알암수과 105
알앗수다 117
양팡 21
앗다 23
어금손가락 34
어디우과 117
어디 감수광 117
어평허코 117
어평허코 115
어평허민 70
어평허민 70
어룬 29
어염 28
어진아 92
어프다 45
언주에기(손가락) 34
얼메나 지들려사 74
엄지손가락 34
에염 28
여 83
여드렛당 124
여산쟁이 78

역불로 69
옛날 50, 75
영 131
예산 30
오널 75
오메기술 82
오소록하다 29
오시록하다 29
오중에 29
오지 많서 66
오토미 59, 69
올래 111, 134
올레 111, 134
와리지 말양 112
와리지 많서 117
와치 78
완전이 38
왓젠 109
요지금 22
요지음 22
움칠락하다 91
웅쟁 29
웨롭다 32
유썩 28
유입 28
으스하다 29
을큰하다 95
이땅 보게 117
이시쿠다 81
이싱 29
이어싸 43
이예기 108
이와기 108
이왓 108
이치록 59, 67

일름 20
일렛당 124
일름 20
일은 30
일찌갱이 20
일흠 20
잇날 50
웃다 23
으답 30
으든 31
으뜸 30
으름 32
으숫 30
으숫 30
옥삭다 89
옥옥하다 90
옴다 90
웃세 47
윙 28

ㄱ

자왓 93
자작거리다 24
자작자작 24
자젠 90
잘 29
잘도 132
잘 먹쿠다 110
잠베질하다 24
잠뱅이질하다 24
잠불리다 24
장버랭이 19
장손 ㄱ락 34
잡히다 24

쟁이 78
저겅 28
저곳 28
저르 77
저르 엇다 70
저를 엇다 70
저를지다 40
저슬 32, 64
저실 32, 64
저싱 29
저을 32, 64, 132
전하는 사름 73
전달하는 사름 73
정 131
정제 41
정지 41
조름 75
조잘조잘 24
조지레기 96
족다 26, 100
좁팍 44
좁팍세기 44
줄수다 117
좋앗덴 71
주끄다 45
주멍기 22
주멍이 22
주제 88
좁치 22
즐길락 76
지꺼전 109
지꺼지게 54
지꺼지다 117, 120
지프다 22
직산하다 92

직하고 시픈 73
 직하고정 헌 73
 직허기 기루운 73
 직허다 73
 진기 135
 진진하다 46
 질다 46
 질딱하다 46
 질메 48
 질쪽하다 46
 질찍하다 46
 집장 88
 집줄 51
 조곶 28
 조곶 28
 조곶되 81
 조르지다 40
 조미지게 54
 조미지다 54
 조신 38
 조신감 75
 죽다 27
 존자리 29
 줌녀 74
 줌네 74
 줌다 114
 줌수 74
 줌줍하다 21, 96
 좇다 44
 좇듯이 84

㉠

창 19
 창괘 21

천천이 읊서 58
 철데가리 91
 철데강이 91
 청렴하다 17
 촌촌히 114
 출례 89
 춤말로 113
 춤몹 84
 춤읍서 117
 훗아와 줌서 105
 훗아쥬 102

㉡

케다 132
 케왓 123
 코자다 131
 코지 116, 125
 코허다 131
 쿠살 17
 쿨 132
 콤 132
 콤다 132
 콤일 132
 콧간절귀 16
 콧낭으름 16
 퀴 17
 쿵쿨하다 17
 쿵쿨흔 73

㉢

털닥시 91
 토백이 134
 튀다 27, 71

트랑트랑 69
 트멍에 20
 틀 16
 티 19
 툏고지 18
 툏곡지 18
 툏국지 18

㉣

파랑하다 47
 퍼렁하다 26
 펜안허우과 83, 110, 117
 펜안허게 쉽서 63
 펠롱펠롱 42
 편안허게 갑서 63
 평안허우과 83
 폭삭 속앗수다 79, 109
 폭허다 25
 폭하다 25
 푸리다 26, 55
 푸리롱하다 55
 푸리롱흔 73
 푸리롱하다 26, 55
 푸리스롱하다 26, 55
 풍류와치 78
 풍치다 55

㉤

하간 130
 하근 130
 하양허다 39
 하양하다 39, 66
 한다버리 29

할망 124
합찰락 76
햇강이 30
햇갱이 30
향오바 125
헐리 33, 75
헛경이 30
헛갱이 30
헤염치다 36
호스와치 77
환영햐수다 62
활썬 25
홀썬 25
훗맛 53
흐린조 49
히다 36, 39
히양허다 66
히염치다 36
히염치다 36
힘치다 36
흐고 72
흐고 시프다 70
흐고정 허다 70
흐고프다 70
흐곡 72
흐구정 허다 70
흐꼼만 이십서 117
흐나 30
흐명 72
흐썰 112
흐썰 잇당 58
흐지 그릅다 70
흐지 기릅다 70
흐덴 흐민 72
흐딤 74
흐딤 흐다 74
흐디 74
흐저 읍서 62, 114
흐저 읍서에 105

제주어, 궁금하거나 몰른 거 싶건 들어봅시앙

제주어종합상담실이 뭔가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와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제주어 전문 상담 창구입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전화는 소중한 제주어가 누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어,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 있거든
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이용하나요?

주요 업무

제주어 관련 종합 상담
제주어 종합 상담 자료집 발간 등

상담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상담 방법

- 상담 전화 **들어봄서 ☎ 1811-0515**
- 전자우편 **jejueo0515@hanmail.net**

연구 수행

◎ 연구진

- 총 관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연구책임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연구보조 서수빈, 현혜림, 현혜경(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 자문위원

-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행정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